

태권도의 날 기념

전국 대학생 태권도 학술경진대회

발표 자료집

2022년 9월 4일 오후 3시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강당

주최 및 주관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 박물관)

재정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후원  국기원  WORLD
TAEKWONDO  KTA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정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태권도의 날 기념

전국 대학생 태권도 학술경진대회

발표 자료집

목차

1 태권도 분야별 발차기의 기술적 유사성 탐구

품새 및 시범의 기술적 결합화를 중심으로

박현규(가천대학교)·김사랑(가천대학교)

2 프로 태권도 리그 출범을 통한 태권도 겨루기 종목의 발전 방안

복싱과 종합 격투기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조은세상(서울대학교)·김민서(서울대학교)·김영연(서울대학교)

3 태권도 공연의 문화상품 활성화 방안과 전망

윤석주(신한대학교)·변대한(신한대학교)·박세원(신한대학교)

4 성인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 부재와 활성화 방안

성인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과 생활체육 활성화

이승제 (용인대학교)·임재범 (용인대학교)·신승희 (용인대학교)

5 남북 태권도 교환교류의 재인식과 향후 거취의 쟁점화

기존의 담론이 지닌 현실주의적 관점으로부터의 탈피

김민석(용인대학교)

6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판정 인식과 참여만족 및 재참여의사의 관계

장혜림(조선대학교)·최수영(조선대학교)

태권도 분야별 발차기의 기술적 유사성 탐구

- 품새 및 시범의 기술적 결합화를 중심으로 -

박현규(가천대학교1) · 김사랑(가천대학교)

국문초록

태권도 품새가 다양하게 경기화 되면서 기존 공인 품새에 초점을 맞춘 훈련만으로는 선수들의 부상 위험과 기술적 부담감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엘리트 스포츠의 경우 전문화로 인해 품새, 겨루기, 시범 각 종목 선수들이 서로 다른 종목의 차기나 동작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숙련도 높은 동작을 수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각 태권도 품새, 겨루기, 시범 기술 중 차기 동작의 움직임과 형태의 유사성을 찾고, 분류기준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훈련방안을 찾아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품새, 겨루기, 시범 차기 기술과 관련한 국내 서적 및 논문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분석된 영역 중 차는 발의 패턴, 중심이동 패턴의 움직임에 기준점을 두어 각 종목 차기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 차기 동작 시 차는 발의 패턴에 따라 차기와 밀기로 구분하고, 중심이동의 패턴에 따라 제자리, 건기, 뛰기, 한 발 도약, 양발도약의 경우로 나누어 분석했다.

위의 과정을 통해 두 가지 특징의 결합으로 품새, 겨루기, 시범에서 사용되는 움직임을 기법에 따라 분류하고 첫째, 중심 이동의 연습, 둘째, 중심이동 이후 발차기의 연결, 셋째, 중심이동 방향과 신체 중심의 조절 연습, 넷째, 본 연구의 움직임 기법을 통한 차기 훈련과 같은 훈련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분류와 분석을 통해 종목별 차기 기술의 이해도를 높이고 태권도장 교육과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의 신기술 개발과 경기규칙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태권도 품새, 겨루기, 시범 한 종목으로 치우치지 않는 훈련체계를 연결하여 이상적인 태권도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태권도, 품새, 시범, 겨루기, 차기, 차기기술 분류

제 출 일 : 2022. 08 .22 .

심사완료일 : 2022. . . .

1) qkrgusrb6779@naver.com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태권도 품새 경기는 1992년 12월 9일 제 1회 태권도한마당대회를 시작으로 2006년 품새 경기 규정 제정을 통해 경기종목의 조건을 갖추었다(차영남, 정재환, 2017). 품새의 세계화를 통해 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많은 태권도인들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채택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시작으로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도 품새가 채택되며 올림픽정식종목 채택에 한층 다가가고 있다.

많은 품새 선수들이 꿈의 무대인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해 국가대표선수 선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공인품새와 새품새, 자유품새를 동시에 경연하였고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2023년으로 연기됨)에서도 동시 경연이 이루어질 상황이다.

태권도 기술의 평준화로 기존 품새의 경우 여전히 변별력을 찾기 어려웠지만 새품새와 자유품새가 이를 보완하며 스포츠로서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배진남, 2018). 국내 대회에서도 자유품새 대회가 활성화 되면서 기존의 품새 선수들은 공인품새 선수, 자유품새 선수로 나뉘게 되었다. 그러나 공인품새 선수들도 국가대표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동시 경연의 부담감을 피할 수 없는 노릇이다. 체력이 충분한 상태에서도 자유품새 경기 중 고난도 기술에 의해 발목이나 무릎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은데 동시 경연 시에는 이러한 위험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연스

레 100%의 경기력을 펼치기 어렵다(정재환, 배종범, 2022). 서운진, 이서재의 태권도 공인 품새와 새품새의 차기 비교를 통한 새품새의 가치 탐구(2021)에서 새품새의 기본 차기 비율은 33.2%, 겨루기 차기 비율은 29.3%, 시범발차기의 비율은 37.5%로 나타나며 발차기의 형태가 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나 유단자 품새에서 기본 차기 비율은 69.4%, 겨루기차기 4.9%, 시범차기 25.7%로 새품새와 대조되었다.

엘리트 체육의 경우 품새, 겨루기, 시범 각종목 선수들이 서로 다른 종목의 차기나 동작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숙련도 높은 동작을 수행하지 못했다. 품새 선수들의 평준화로 품새 전문 지도 태권도장들이 늘어남에 따라 공인 품새만 수련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는 공인 품새 선수들이 시범 종목과 겨루기 종목의 발차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이유로 사료된다.

또한 공인 품새만 수련하며 종목에서의 이점을 위해 돌려차기를 공을 던지는 듯한 동작(Throw-like motion)과 옆차기와 같은 미는 형태(Push-like motion)를 혼합하여 차거나 시범 종목의 고난도 기술을 수행할 때 중심이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익숙한 앞축부터 던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종목의 차이점으로 인해 경연 시에도, 연습 시에도 부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태권도 기술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난이도 별로 기술체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최치선·임태희,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시 경연을 위한 공인 품새 선수들의 시범 종목 기술과의 결합화를 위해 비교적 발차기 자체의 난도는 낮은 겨루기 종목 기술과의 유사한 움직임 기법을 탐구하고 분류하여 효율적인 훈련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선수들이 한 종목

에 치우치지 않는 훈련체계의 연결을 통해 종목의 특성에 이해하는 전문적인 태권도인으로 성장하고 종목별로 전문화된 차기의 정수를 이해하여 주 종목에서도 경기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II. 연구방법

태권도 품새, 겨루기, 시범 차기 기술의 형태와 체계적 분류에 대해 이해하기 위하여 학회나 학위 연구논문 및 영상자료를 참조하였다. 국내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를 통해 태권도, 품새선수, 새 품새, 차기 기술 분류, 움직임 등의 주제어를 검색했고, 연구의 방향과 일치하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접근성이 편리한 유튜브(www.youtube.com)를 통해 기관에서 배포된 공인 품새, 새 품새, 자유 품새, 시범, 겨루기 경기 영상을 분석 및 비교하였다. 실제 경기 장면에서 주로 사용되는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뒤차기, 뒤돌려차기의 다섯 가지 기술을 정하고 문헌 자료와 영상자료를 참고해 동일한 차기 동작이더라도 경기마다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분류했다.

III. 연구 결과

1. 차기 시 차는 발의 패턴 분석

차기를 단순히 정의하자면 무릎을 빨리 접었다 폼으로 목표를 타격하는 것이다. 이는 엉

덩관절과 무릎관절이 빠르게 굽힘과 펴지며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차기는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이 굽힘 동작을 통해 관성모멘트를 줄여 속도를 높이고 무릎관절의 폼을 통해 관성모멘트를 크게 만들어 최대 속도에서 충격력을 높인다. 따라서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굽힘 동작, 무릎관절의 폼 동작은 차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차기의 특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차기의 형태를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표 1. 차기 패턴 구분

차기	밀기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뒤차기, 뒤후려차기

1) 차기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굽힘 동작 이후 엉덩관절의 폼 없이 무릎관절의 폼을 통해 하퇴 분절로 타격한다(무릎의 고정). 상황에 따라 무릎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회전력에 의함이고 엉덩관절 폼에 의한 무릎의 위치 변화가 아니다.

2) 밀기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의 굽힘 동작 이후 엉덩관절의 폼과 무릎관절의 폼을 통해 발바닥, 옆축, 뒤축 등을 이용해 밀어내거나 타격한다(무릎의 이동).

2. 차기 시 중심이동의 패턴 분석

차기의 중심이동 패턴을 영상 분석을 통한 결과 겨루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움직임 기법은 신체중심(COM)의 수평 변위가 컸으며 시범에서

주로 사용되는 움직임 기법은 신체중심(COM)의 수직 변위가 컸다.

겨루기와 시범 분야의 힘의 방향은 다르나 중심이동의 방법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폼새에서 주로 사용되는 움직임 기법보다 겨루기와 시범에서의 움직임 기법이 신체중심(COM)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는 폼새 선수들이 폼새를 수련함에 있어서도 균형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차기의 움직임 기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심이동의 패턴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1) 제자리

(1) 차기 시 별다른 딛기 동작이 없이 수행하는 경우

(2) 신체 중심(COM)의 변화가 없다고 보이는 경우

2) 걷기

(1) 차기 시 별다른 딛기 동작이 없더라도 신체 중심(COM)의 변화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2) 딛기 동작이 있는 경우에도 지지발이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은 경우

3) 달리기

(1) 한 다리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발이 지면에서 떨어진 경우

(2) 차기 시 엉덩관절이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두 번 회전하는 경우

(3) 처음 드는 발이 차기를 수행하기 위함이 아닌 도약이 목적이더라도 두 번째 드는 발이 차기를 수행하기 위해 엉덩관절이 반대 방

향으로 다시 회전하는 경우

4) 한발도약

(1) 한 다리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지지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경우

(2) 도약 후 차기 시 두 번 이상 차는 경우

(3) 도약하는 발과 차는 발이 다르더라도 진행 방향 기준으로 엉덩관절의 회전 방향이 같은 경우²⁾

달리기 패턴과 한발도약의 차이점은 체공 상태에서의 발차기가 지면의 힘을 받았는지 이다. 예를 들어 나래차기는 두 발이 모두 지면의 힘을 받아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달리기의 패턴이라고 판단하였고, 돌려차기 3단계는 비틀어차기 이후의 마지막 돌려차기가 체공 상태에서의 상체와 하체의 비틀림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5) 양발도약

양발이 동시에 지면을 밀어내 도약하는 경우

3. 움직임 기법에 따른 분야별 차기

차기의 패턴과 중심이동의 결합을 통해 차기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걷기+앞차기의 경우 기본차기에서의 앞차기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이미 앞차기, 돌려차기, 옆

2) 달리기 패턴과 한발도약의 차이점은 체공 상태에서의 발차기가 지면의 힘을 받았는지이다. 예를 들어 나래차기는 두 발이 모두 지면의 힘을 받아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달리기의 패턴이라고 판단하였고, 돌려차기 3단계는 비틀어차기 이후의 마지막 돌려차기가 체공 상태에서의 상체와 하체의 비틀림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차기, 뒤차기, 뒤후려차기 등 다양한 차기의 용어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의 세분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훈련을 개발하고 차기를 분석하거나 난도가 높은 복잡하고 다양한 움직임의 차기를 수행할 때에는 이러한 패턴의 세분화가 도움이 될 것이다.

1) 겨루기 형태

겨루기 형태의 경우 종목의 특성상 상황별 차기 용어를 명확히 얘기할 수 없는 동작들이 많았다. ex) 받아 차기 상황, 양발로 도약하여 옆차기를 통해 상대를 밀어냈다.

2.) 품새 형태

품새 형태의 경우 공인 품새에서 걷기 패턴 이외의 발차기의 경우가 타 종목에 비해 비교적 적었다. 태극 품새에서 발차기의 비율은 약 25%로 너무 적게 구성되어 있다(안근아, 2005). 또한 유단자 품새의 경우에도 발차기 기술은 13.7%(강익필 · 김상두 · 임도순 · 정현도, 2006)로 발차기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공인품새만 수련하는 선수들은 다양한 발차기의 움직임 기법에 대해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겨루기 형태 차기 분류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뒤차기	뒤후려차기
제자리	앞발로 지면에서 떨어지지 않고 차는 경우			기본발차기와 유사	
걷기	기본 발차기와 유사				
달리기	뛰어앞차기	나래차기 뛰어들려차기			
한발도약	스키펙 앞차기	스키펙 돌려차기 돌개차기	스키펙 옆차기	스키펙 뒤차기 걸고 뒤차기	스키펙 뒤후려차기 걸고 뒤후려차기
양발도약	발바퀴 앞차기	발바퀴 돌려차기		뛰어뒤차기	뛰어뒤후려차기

표 3. 품새 형태 차기 분류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뒤차기	뒤후려차기
제자리	앞발 들어차기 (태극 8장)		학다리서기 (태백, 평원 등)		
걷기	기본발차기와 유사				
달리기	두발당성차기 (태극 8장)				
한발도약	앞차고 뛰어앞차기 (태극 8장)				
양발도약					

3) 시범 형태

시범 형태의 경우 세 종목 중 가장 다양한 패턴의 발차기를 수행하며, 그만큼 발차기 자체의 난도가 높다. 폼새 선수들이 다양한 움직임 기법에 적응하지 못하여 부상을 입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사료 된다.

달리기 패턴과 한발 도약 패턴을 보면 같은 뛰어 앞차기, 돌려차기 이지만 다른 패턴을 보이는 이유 *1의 내용과 같다.

4. 움직임 기법에 따른 훈련방안

본 연구에서는 발차기의 패턴과 중심이동의 패턴 그리고 두 가지의 패턴을 결합하여 다양한 움직임 기법에 대해 분류하였다.

이에 따른 훈련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중심이동의 연습

둘째. 중심이동 이후 발차기의 연결

셋째. 중심이동의 방향과 신체중심(COM)의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본 연구의 움직임 기법을 통한 발차기

표 4. 시범 형태 차기 분류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뒤차기	뒤후려차기
제자리					
걷기	기본발차기와 유사				
달리기	뛰어앞차기	뛰어돌려차기			
한발도약	뛰어앞차기 (3-5단계)	뛰어돌려차기 (3-5단계) 돌개차기 720도 1080도	뛰어옆차기(1~ 단계)	걸고뒤차기	걸고뒤후려차기 540도 900도
양발도약	모뎀발뛰어앞차기 양발고축			뛰어뒤차기	뛰어뒤후려차기

를 훈련할 것.

1) 중심이동 훈련방안 제시

본 연구의 분류에 따르면 제자리와 걷기에서는 세 종목 모두 기본발차기와 유사했던 반면, 한발도약과 양발도약에서 겨루기와 시범 종목에서 다양한 움직임 기법을 보였으며 영상 분석 결과 겨루기 종목의 스키핑 스텝과 시범 종목의 뛰어 앞차기(3~단계) 뛰어 돌려차기(3~단계) 뛰어옆차기(1~단계)는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시범 종목의 한발 도약 발차기를 위해 스키핑 스텝부터의 단계별 훈련방안을 제시한다.

(1) 무릎을 들어올리며 판미트 위에 지지발을 안착하며 착지한다.

(2) 1번의 과정에서 지지발이 판미트에 닿는 시점에 앞차기와 동시에 연결한다.

(3) 1번의 과정에서 지지발을 체공상태에서 회전하며 돌려차기와 동시에 연결한다.

(4) 1번의 과정에서 지지발을 체공상태에서 회전하며 옆차기와 동시에 연결한다.

(5) 1번의 과정에서 판미트 앞에 높이가 있는

장애물을 설치 후 지지발로 무릎을 가슴으로 당기며 착지한다.

6) 5번의 과정에서 2번 3번 4번을 결합하여 발차기를 수행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겨루기, 품새, 시범 종목에서의 기술적 유사성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품새 선수의 시범 기술 수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품새가 다양하게 경기화 되면서 기존 공인 품새에 초점을 맞춘 훈련이 아닌 다양한 움직임 기법과 중심이동을 통한 발차기로 주종목인 품새에서의 균형성 훈련과 겨루기 종목과 시범 종목 간의 기술적 유사성을 찾고 분류기준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훈련방안을 찾아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품새 선수들이 종목별 발차기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엘리트 체육을 넘어 일선 태권도장에서도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영상과 국내 서적 및 논문 자료만을 가지고 진행되었기에 운동학적 분석을 통해 시범 종목의 한발도약 기술과 겨루기 종목의 한발도약 기술이 유사성을 띄는지 검증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심이동과 차기 패턴에 대해서만 분류가 진행되었기에 회전 기술에 관련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자유 품새와 새 품새에서 가장 난도가 높게 평가되는 회전 발차기 분야의 움직임 기법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보며 공인 품새와 새 품새의 발차기 비교 선행연구에서

겨루기, 품새, 시범 분야 발차기가 모두 30% 전후의 고른 비율로 공인 품새와 비교하여 태권도의 발차기가 다양하게 표현 되었고 공인품새의 단점을 보완하고 변별력을 찾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새 품새가 더욱 활성화되어 이 연구가 새 품새 수련의 기초자료로서도 활용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나혜(2011). 태권도 달기 기술의 정의와 분류에 관한 고찰. 국기원 태권도연구, 2(1), 41-50.
- 김영대, 양대승(2021). 태권도 겨루기, 품새, 시범선수들의 체력 및 무산소성 운동능력 차이.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2(2), 39-51.
- 배중범, 정재환(2022). 국가대표 품새 선수들의 자유 품새, 공인 품새 동시 경연 시 나타나는 문제점 탐색. 한국스포츠학회지, 20(2), 593-602.
- 서운진, 이서재(2021). 태권도 공인 품새와 새 품새의 발차기 비교를 통한 새 품새의 가치 탐구.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2(3), 1-17.
- 왕철민, 광이섭, 김학덕(2015). 태권도 품새 선수 지도를 위한 균형 능력과 하지 외전근의 운동학적 고찰. 코칭능력개발지, 17(2), 117-126.
- 유정현, 임정혁(2021). 태권도 품새, 겨루기, 시범 수행자의 기본 차기 차이 인식. 가천대학교 수업 발표 자료.
- 이남경, 전형필(2021). 태권도 선수들의 종목별 기능성 움직임 검사 FMS(Functional Movement Screen)를 통한 비교분석. 대한무도학회지, 23(2), 207-220.
- 조은형(2015). 태권도 품새 동작의 난이도 분석을 위한 표준화 연구. 국기원 태권도연구, 6(1), 115-156.
- 차영남, 정재환(2017). 태권도 품새 경기문화의 제고방안 연구. 한국스포츠학회지, 15(3), 81-89.
- 최치선, 강명수, 양종현, 설성란(2016). 운동역학적 원리에 근거한 태권도 기술 분류. 국기원 태권도연구, 7(3), 191-210.
- 최치선, 임태희(2013). Gentile의 운동학습 이론에 근거한 태권도 기술체계 분류. 국기원 태권도연구, 4(3), 57-81.
- 탁형균, 장종오, 김준웅, 최현민(2019). 태권도 겨루기, 시범, 품새 선수 간 체력요인 비교. 국기원 태권도연구, 10(4), 283-299.

프로 태권도 리그 출범을 통한 태권도 겨루기 종목의 발전 방안

-복싱과 종합 격투기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조은세상(서울대학교)¹⁾·김민서(서울대학교)²⁾·김영연(서울대학교)³⁾

국문초록

오늘날 스포츠는 각 시기를 주도하는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며 그 의미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스포츠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태권도 또한 이러한 대열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더욱이 대한민국의 전통무예로 여겨지는 태권도의 부흥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태권도 겨루기 종목에는 올림픽 종목 유지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전자호구의 도입 이후부터 경기가 재미있지 못하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논의는 필수 불가결하다. 태권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하기 위해 우선 본고에서는 현재의 태권도 리그 체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는지 분석하였으며 경제적 측면에서 크게 다음 두 가지를 지적하였다. 첫 번째 문제는 태권도 겨루기 종목에 프로 리그와 아마추어 리그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으며 두 번째 문제는 현존하는 실업팀 체계가 프로 리그의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한편, 유사 격투 종목인 프로 복싱과 종합격투기 경기는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소비되고 있는데 그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분석해보았다. 사례 분석 결과 이러한 인기는 단순한 경기 규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기 스타일과 드라마, 미학에 대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결국 태권도에 있어서도 아마추어 태권도와 프로 태권도 사이 명백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특히 프로 태권도에 있어서는 10포인트 머스트 시스템 도입 및 보호구 간소화와 같은 경기 규칙의 단순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선수들이 대전을 받아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종전에 진행된 적이 없던 프로 태권도에 대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여 발전 방향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후속 연구로서 프로 리그 시스템이 특히 태권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면 좋을 것이다.

주제어 : 태권도, 겨루기, 프로, 아마추어

제 출 일 : 2022. 08. 22.

심사완료일 : 2022. . .

1) sens0033@snu.ac.kr

2) alstj0174@snu.ac.kr

3) legoyian@snu.ac.kr

I. 서론

오늘날 스포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각 시기를 주도하는 이데올로기와 결합하며 그 의미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스포츠에 대한 연구와 재해석에 대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구강분(2019)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스포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탐구 및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스포츠 문화의 지향점과 방향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⁴⁾

태권도 또한 이러한 스포츠의 변화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더욱이 대한민국의 전통무예로 여겨지는 태권도의 부흥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태권도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으나 정식 종목 유지의 불안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경기의 지루함 등으로 인한 논란 또한 지속되어 왔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경기 규칙 재정비와 전자호구 제도 마련, 경기장 규격 변화 등의 노력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태권도의 부흥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였다.⁵⁾

또한, 태권도는 복싱 및 종합격투기와 같은 다른 종목에 비해 사기업의 후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며 이는 경제적 관점에서 태권도의 지위를 뒤쳐지게 할 수밖에 없었다. 종전에 이루어졌던 프로 태권도의 출범 시도 역시 이와 같은 태권도의 경제적 부흥 기대에 완전히 미치지지는 못하였다. 세계 대한프로태권도연맹이 ‘평생 프로태권도만 해도 직업을 얻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종목으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프로태권도연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선수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단순히 그들의 경기만으로는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

이에 본고에서는 태권도 겨루기 경기의 현황을 분석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태권도 겨루기 경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재봉(2018)은 태권도를 유사 종목과 비교하여 이를 바탕으로 태권도 부흥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⁷⁾ 이에 태권도와 달리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이 존재하는 복싱, 종합격투기 등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태권도 부흥 방안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4) 구강분. (2019). 스포츠문화와 사회변화의 관계 탐색.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6(4), 1182.

5) 김순영, & 이아름. (2020). 태권도 겨루기 경기의 현황과 발전방향. *무예연구*, 14(2), 25.

6) 세계대한프로태권도연맹, 인사발, 2022년 8월 19일 발취, <http://kptf.or.kr/amina/html.php?hid=0101>.

7) 이재봉. (2018). 올림픽종목 유지를 위한 태권도 경기 발전 방안. *한국스포츠학회*, 16(3), 738.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프로와 아마추어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태권도 겨루기에서의 프로 리그와 아마추어 리그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경제적 가치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룰 것이기에 프로 스포츠와 아마추어 스포츠를 구분하는 기준에 자본주의적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정식·남중웅(2004)의 연구에 따르면 아마추어는 라틴어의 *amatorem*, *amatre*에서 유래된 말로 본래 소인, 미숙자, 애호가를 일컫는 말이었으며 프로는 *professional*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문 직종으로서의 스포츠를 행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⁸⁾⁹⁾ 즉,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아마추어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황에서 스포츠를 행하는 가장 큰 원인이 개인의 취미 생활 및 여가에서 기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프로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본인의 생계를 위해 스포츠를 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즉,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큰 구분점은 *prize-fighting*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다.¹⁰⁾¹¹⁾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자본주의적 관점에 근거한 프로와 아마추어의 정의를 사용할 것이다.

II. 문제 제기 및 현황 분석

태권도 겨루기가 겪고 있는 문제점은 이미 수차례 제기되어 왔다.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서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유사 투기 종목과의 확실한 차별점이 부재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2-1. 프로와 아마추어 구분의 부재

태권도는 유사 격투 종목들과는 다르게 프로와 아마추어 리그의 구분이 부재하다. 공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들도 프로 태권도 선수라기보다는 실업팀에 속한 아마추어로 구분되며 이들이 목표로 하는 올림픽 시합 자체도 아마추어 시합에 속한다. 즉, 태권도를 업으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선수들이 목표하는 것조차 프로 리그가 아닌 아마추어 리그인 것이다. 프로 리그와 아마추어 리그가 구분되어 있는 스포츠의 경우 선수들은 대전료를 받아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지만 태권도 선수들은 프로 리그의 부재로 인해 대전료가 아닌 월급을 받아 생활하기에 태권도 선수를

8) 이정식, & 남중웅. (2004). 현대 아마추어스포츠와 프로스포츠의 이념적 갈등과 조화방안. *한국스포츠리서치*, 15(1), 654.

9) 위의 글, 658.

10) *prize-fighting*이란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이 상품, 상금 등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는 행위를 뜻한다.

11) Murphy, P., & Sheard, K. (2006). Boxing Blind: Unplanned Processes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Boxing. *Sport in Society*, 9(4), 544.

프로 태권도 리그 출범을 통한 태권도 거루기 종목의 발전 방안

업으로 삼기 더욱 꺼려한다. 서론에서 정의한 아마추어와 프로의 개념에 따르면 아마추어 스포츠는 이미 경제적 기반을 확보한 이들이 취미로 스포츠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태권도 선수들은 모두 경제적 기반이 확보되어 있으며 태권도를 취미로 행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이 명백히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현재 태권도 선수들이 지향해야 할 지점은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 리그인데 아마추어 리그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태권도에서 프로 리그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950년대 문무관에서 시작된 프로 태권도는 한국프로태권도협회로 이어져 현재는 대한프로태권도연맹으로 자리 잡았으며 대한프로태권도연맹은 비영리 체육법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프로태권도연맹이 갖는 영향력과 프로 태권도 부흥을 위한 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아직까지 프로 리그와 아마추어 리그의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문제점이다. 세계대한프로태권도연맹의 홈페이지에서 그들의 연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연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점은 1991년 1월 사단법인 대한프로태권도연맹 창단 이후 7명의 회장을 배출했지만 정작 현재까지 해 온 활동은 ‘해외 및 국내 일선 지도자 연수, 세미나 연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¹²⁾ 프로 리그 부흥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계대한프로태권도연맹이 이룬 것은 지도자 연수와 세미나가 전부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만 보더라도 프로와 아마추어 리그의 부재와 그 현실이 마주하고 있는 한계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2. 실업팀의 현실

억대 연봉을 받는 류현진, 박세리 등의 유명 스포츠선수는 모두 프로 리그에서 경쟁한다. 프로 리그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해 생업에 뛰어들게 된 태권도 선수는 주로 실업팀에 속하게 된다. 물론 그 실업팀마저 모두에게 보장된 기회는 아니며 일부 특출난 선수만이 실업팀에 속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팀들이 프로 리그의 역할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장에서는 실업팀의 현실을 살펴보고 실업팀이 프로 리그를 궁극적으로 대체할 수 없음에 대해 논증해 보고자 한다.¹³⁾

첫째로 현재 국내 태권도 실업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강원도체육회, 강화군청, 고양시청, 김제시청, 김포시청, 김해시체육회, 대전광역시청, 동래구청, 삼성에스원, 서울시청, 서천군청, 성남시청, 성주군청, 수성구청, 수영구청, 수원시청, 안산시청, 영천시청, 용인시청, 인천동구청, 전주시청, 제주도청, 중랑구청, 진천구청, 철원군청, 청주시청, 춘천시청, 충남도청, 포천시청,

12) 세계대한프로태권도연맹, 인사말, 2022년 8월 19일 발췌,
<http://kptf.or.kr/amina/html.php?hid=0102>.

13) 본고에서 사용되는 ‘태권도 선수’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여 생업의 수단으로 태권도 선수 활동을 하는 성인 선수’로만 한정하고자 한다.

포항시체육회, 한국가스공사, 홍천군청까지 총 32개의 실업팀이 존재하고 있다.¹⁴⁾ 태권도와 마찬가지로 프로 리그가 존재하지 않는 유도 종목조차 65개의 실업팀이 존재한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종주국으로서 태권도 실업팀의 숫자는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태권도 선수들이 충분히 활약할 수 없는 실업팀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이 태권도 실업팀의 첫 번째 한계점이다.

둘째로 기업의 후원이 거의 미비한 상황이며 사기업의 경제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선수들이 경기 자체를 통해 얻은 수입만으로 생활을 이어나가려면 선수 본인이 속한 팀에게서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태권도 실업팀은 대부분 시,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이 참여하는 팀은 삼성에스원, 한국가스공사 단 두 곳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기업은 야구, 배구 등의 인기 프로 스포츠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소위 비인기 종목으로 불리고 있는 태권도는 기업의 후원과 경제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업팀 선수들은 다른 인기 종목의 프로 선수들과는 달리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현재의 태권도 실업팀 선수들은 대전료에만 의존한 생계 유지를 이어나갈 수 없다.

이렇듯 프로 리그가 존재하지 않는 태권도 종목에서 현존하는 실업팀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결국, 태권도 실업팀은 그 숫자가 부족할뿐더러 기업이 소유한 실업팀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에 프로 리그 선수만큼 경제적으로 충분한 지지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다음 장에서는 태권도 겨루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Ⅲ. 대안 제시 및 기대 효과

전 장은 태권도 겨루기 경기가 직면한 경제적 현황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장에서는 태권도 겨루기 경기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대안점과 나아가 태권도 겨루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3.1 프로 복싱과 종합격투기 : 단순한 경기 규칙

한국의 복싱은 1933년 조선체육회 『아마추어스포츠규약』을 선포한 이래 프로 복싱과 아마추어 복싱으로 구별되어 발전해 왔다.¹⁵⁾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했듯, 프로 복싱과 아마추어 복싱은 시합 대전료의 유무로 구분된다. 아마추어 복싱 선수는 복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주로 ‘아마

14) 한국실업태권도연맹, 팀 및 선수단, 2022년 8월 19일 발취, http://www.kitf.or.kr/sub/sub02_01.php?boardid=team&sk=&sw=&category=&offset=24.

15) 김동백. (2002). 한국 아마추어 복싱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프로 태권도 리그 출범을 통한 태권도 겨루기 종목의 발전 방안

추어 정신'에 입각한 명예 취득을 추구한다. 아마추어 복싱 선수는 대전료가 걸려 있는 프로 복싱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이는 『아마추어스포츠규약』에 명시되어 있다.¹⁶⁾ 반면 프로 복싱 선수는 시합 대전료를 통한 생계유지를 추구한다. 한편 이러한 prize-fighting에 기반한 차이 이외에 아마추어 복싱과 프로 복싱 사이에는 경기 규칙이나 스타일에 있어 몇 가지 차이점이 더 존재한다. 먼저 아마추어 복싱 경기는 3 라운드로 구성되고 유효 타격에 기반한 채점 방식을 채택하지만¹⁷⁾, 프로 복싱 경기는 4 ~ 15 라운드의 장기전으로 구성되며 공격성이나 우세 등에 근거한 라운드별 판정으로 채점이 이루어진다.¹⁸⁾ 또한 보호구 착용 방식에서도 큰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프로 복싱 경기와 달리 아마추어 복싱 경기에서는 헤드기어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¹⁹⁾ 이러한 경기 규칙의 차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프로 복싱과 아마추어 복싱의 경기 스타일이 크게 달라진다. 아마추어 복싱에서는 유효 타를 많이 만들어 점수 차를 내는 것이 경기 운영의 주된 목적이지만, 프로 복싱에서는 기술적인 부분의 우세나 KO승을 얻기 위한 경기가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아마추어 복싱에서는 스트레이트와 잭 등의 기본기 위주 경기가 펼쳐지지만, 프로 복싱에서는 훅과 어퍼컷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이 사용되어 KO승을 노리기 위한 시합이 진행된다.

한편 이러한 프로 복싱 경기의 규칙은 종합격투기(Mixed Martial Arts, MMA) 경기의 규칙과 상당히 유사하다. 종합격투기 경기 역시 여러 개의 라운드로 구성되며 기술적인 부분이나 경기 지배력 등을 고려한 라운드별 판정으로 채점된다. 한편, 2010년대 이후 프로 복싱과 종합격투기 경기의 인기는 그야말로 선풍적인데 이는 아일랜드의 종합격투기 선수 코너 맥그리거(Conor Anthony McGregor)와 미국의 프로 복싱 선수 플로이드 메이웨더(Floyd Joy Mayweather Jr.) 사이에서 2017년 성사된 경기의 총 파이트머니가 한화 약 4500억 원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방증한다.²⁰⁾ 이와 같이 현재 프로 복싱과 종합격투기 사업에는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대전료로서 회전하고 있다.

프로 복싱과 종합격투기 경기에 있어 이러한 인기가 형성된 데에는 여러 가지 측면의 이유가 있지만 많은 부분은 그 단순한 경기 규칙에 기인한다. 김승모(2008)에 의하면 2006년 개최된 지역 종합격투기 대회의 관중들을 대상으로 종합격투기 경기 소비 동기가 무엇인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10가지 요소 중 '드라마(Drama)'와 '미학(Aesthetics)'이 각각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²¹⁾ 간소한 보호구 착용과 다양한 타격 부위 등으로 대표되는 단순한 경

16) 위의 글.

17) 대한 복싱 협회, 국제 복싱 협회 기술 및 경기 규칙, 2022년 8월 22일 발췌,
<http://boxing.sports.or.kr/servlets/front/board/action/board>.

18) World Professional Boxing Federation, General Rules for Championship Contests, Retrieved October 22, 2022,
<http://www.wpbf-usbc.com/document.asp>.

19) 위의 글.

20) 문수경, 노컷 뉴스, 둘 합쳐 수입 4500억원...메이웨더·맥그리거 모두 승자, 2022년 8월 22일 발췌,
<https://www.nocutnews.co.kr/news/4836957>.

21) Kim, S., Greenwell, T. C., Andrew, D. P., Lee, J., & Mahony, D. F. (2008). An analysis of spectator motives

기 규칙이 다양한 경기 전략과 예상치 못한 경기 전개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 경기의 드라마와 미학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더불어 라운드별 판정으로 이루어지는 채점 방식은 선수가 KO를 노리는 플레이를 펼치도록 한다. 따라서 종합격투기 경기 자체가 애초 역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전개되며 경기의 긴장감을 만들어낸다.

프로 복싱과 종합격투기 경기의 이러한 실태는 태권도 겨루기 경기의 양상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태권도 겨루기의 인기가 2010년대 이후 전자 호구 도입으로 줄곧 떨어졌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전자 호구의 도입은 앞발 위주의 공격적이지 못한 경기 형태를 만들어내어 태권도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였으며 이를 선수와 지도자, 관중이 느끼고 있다.²²⁾ 경기에 ‘드라마’와 ‘미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앞서 프로 복싱과 종합격투기의 사례에서 분석했듯 단순한 규칙이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므로 헤드기어 제거, 일반 호구 사용 등 보호구를 간소화하거나 타격 부위 제한을 없애는 등 규칙을 단순하게 만들어 프로 태권도 경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태권도 겨루기의 현 상황 해결에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다. 또한, 여러 개의 라운드로 구성된 라운드 시스템 및 라운드별 판정 방식의 채점 역시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재미있는 경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며 실제로 이러한 취지에서 경기 태권도에서는 2022년도부터 라운드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했다.²³⁾ 나아가 현재의 태권도 겨루기 경기 방식은 새로운 아마추어 리그에 적용하여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 등의 출전을 목표로 엘리트 스포츠의 발전을 동시에 이루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다음 절에서 이러한 구체적 대안에 대해 논의하겠다.

3.2 태권도 겨루기 경기의 실질적 발전 방향

앞서 제기한 문제와 현황을 토대로 이 절에서는 프로 태권도 리그의 출범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출범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단체가 어떤 성격을 띠느냐와는 관계 없이 프로 태권도 리그의 출범은 필수적이다.

프로 태권도 리그의 출범을 주장하는 가장 큰 명분은 태권도 겨루기 종목의 자생적 발전이다. 현재 태권도 겨루기 종목을 지탱하는 경제적 기반은 대중에서의 흥행에 의한 것이 아닌 국가적 지원에 의존한다. 태권도가 우리나라의 국기(國技)이고, 또 올림픽 정식 종목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태권도 진흥 사업은 태권도 선수들의 육성과 태권도 산업 전반의 부흥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그런데 박상현(2019)에 따르면, 이 지원마저도 재정 규모가 제한적이고 재정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실정이다.²⁴⁾

in an individual combat sport: A study of mixed martial arts fans. *Sport Marketing Quarterly*, 17(2), 116.

22) 김순영, 앞의 글, 35.

23) 대한 태권도 협회, 경기 규칙, 2022년 8월 22일 발췌,

<https://www.koreataekwondo.co.kr/d006>.

24) 박상현. (2019). 태권도 재정지원사업 진단 및 발전방안 탐색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중심으로. *TAEKWONDO*

프로 태권도 리그 출범을 통한 태권도 겨루기 종목의 발전 방안

이것이 결국 태권도 겨루기 종목이 갖는 한계점이다. ‘자본’은 선수들의 개인적 역량 발전과 스포츠 산업 체계의 발전 모두에서 매우 중요한 동인(動因)이다. 그런데 현재 태권도 산업에는 이 ‘자본’의 회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본을 쥐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태권도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전혀 매력적이지 못하다. 투입 대비 본전 이상의 산출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태권도 산업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프로 태권도 리그 출범은 앞서 기술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프로 태권도 리그가 출범되기 위해서는 리그에 참여할 프로팀이 필수적이다. 프로팀은 기업의 후원 아래 창설되어 선수들을 육성할 기반을 갖추어 시합을 준비한다. 본 논고에서 기업 유치의 과정이나 투자 유도 방안 등을 세심하게 논하기에는 주제에서 크게 벗어날 것이 우려되어 그에 관해서는 깊게 논하지 않겠으며, 제시한 대안인 프로 태권도 리그의 체계와 경기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프로 태권도 리그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기업 소속의 프로팀이 존재하고 프로팀 선수들은 협회 측 대진 결정에 따라 시합에 참여한다. 시합에 참여하는 선수들에게는 대전료가 지급되며 대전료는 현장 관람료와 방송 수익, 그리고 기업들의 후원 등 경기에서 파생되는 수익들로 마련한다. 또한, 특정 선수의 경기 독점이나 선수 생명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선수는 하루 최대 한 경기만을 가질 수 있게 제한을 둔다. 기업은 후원한 선수의 실적에 따라 광고 수익과 부차적인 수입을 얻고, 선수들은 대전료를 얻고, 주최 기관 역시 대회 흥행에 따라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프로 태권도 리그에 관계된 모든 종사자들이 윈-윈(win-win)을 거두는 것이다. 요지는 프로 종합격투기나 프로 복싱 경기와 유사한 양식을 채택하되, ‘프로 태권도’만의 차별점을 두어 흥행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 내적 요소에 대한 논의 역시 필수적이다. 올림픽, 세계선수권 등의 대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태권도 규칙과는 구별되는 프로 태권도만의 ‘단순한’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3.1에서 진행한 논의에 근거하여 보호구를 간소화하고 개별 발차기에 대한 득점 여부가 아닌 경기 내에서의 우세를 판단하는 채점 기준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예시로, 프로 복싱 경기에서 채택하고 있는 10포인트 머스트 시스템이 있겠다. 이는 해당 라운드의 승자에게 10점을 주고 패자에게는 10점보다 낮은 점수를 주는 득점 체계이다²⁵⁾) 이는 현 전자호구 채점 방식의 태권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경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호구 간소화와 규칙 단순화는 선수들이 보다 화려하고

JOURNAL OF KUKKIWON, 10(3), 70-72.

25) Dunn, E. C., Humberstone, C. E., Iredale, K. F., Martin, D. T., & Blazevich, A. J. (2017). Human behaviours associated with dominance in elite amateur boxing bouts: A comparison of winners and losers under the Ten Point Must System. *PLoS One*, 12(12), 2.

강력한 발차기들을 시도하도록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대중들에게 태권도 발차기 고유의 멋을 선보이고 흥행을 이끄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프로 태권도 리그에 계속해서 자본이 유입되고, 그 자본으로 리그 규모 확대를 거두어 결국에는 더 많은 자본을 끌어당기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을 기대한다. 궁극적으로 프로 태권도의 발전은 프로뿐 아니라 아마추어 태권도의 가치를 드높일 것이며, 태권도 겨루기 종목 자체의 무궁한 발전을 이끌 것이다.

IV. 결론

본 연구는 태권도 겨루기 경기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태권도 겨루기 경기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태권도 겨루기 경기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경제적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 태권도 겨루기 종목은 프로 리그와 아마추어 리그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뛰어난 선수들조차 프로 리그가 아닌 아마추어 리그를 목표로 해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프로 연맹들조차 프로 리그의 부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못하였다. 둘째, 현존하는 실업팀의 체계도 프로 리그를 대체할 수는 없었다.

이에 태권도 겨루기 종목이 지향해야 할 현실적인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프로 리그와 아마추어 리그의 구분이 존재하는 복싱, 종합격투기 종목의 사례에서 발견한 ‘단순한 경기 규칙’이 프로 리그에서의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구체적 대안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앞서 이루어진 현황 분석에 의하면 태권도 겨루기 종목은 아마추어 리그와 프로 리그가 구분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이에 아마추어 리그와 프로 리그를 명백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다음으로는 선수들이 대전료를 받아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 확보와 10포인트 머스트 시스템과 같은 제도의 도입과 경기 규칙의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태권도 겨루기 종목은 올림픽 도입 이후부터 종목 유지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전자 호구의 도입 이후부터 경기가 충분히 재미있지 못하다는 대중들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본고는 종전에 진행된 적이 없던 프로 태권도에 대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여 발전 방향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나아가 후속 연구로서 프로 리그 시스템이 특

히 태권도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면 좋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프로 리그와 아마추어 리그의 구분 및 경기 규칙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지만, 더 나아가 이 밖에도 태권도 겨루기 경기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능동적으로 찾는 과정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논문 및 서적]

- 구강분. (2019). 스포츠문화와 사회변화의 관계 탐색.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36(4), 1181-1187.
- 김동백. (2002). 한국 아마추어 복싱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 김순영, & 이아름. (2020). 태권도 겨루기 경기의 현황과 발전방향. *무예연구*, 14(2), 23-38.
- 박상현. (2019). 태권도 재정지원사업 진단 및 발전방안 탐색 :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중심으로.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10(3), 57-80.
- 이재봉. (2018). 올림픽종목 유지를 위한 태권도 경기 발전 방안. *한국스포츠학회*, 16(3), 737-745.
- 이정식, & 남중웅. (2004). 현대 아마추어스포츠와 프로스포츠의 이념적 갈등과 조화방안. *한국스포츠리서치*, 15(1), 651-664.
- Dunn, E. C., Humberstone, C. E., Iredale, K. F., Martin, D. T., & Blazeovich, A. J. (2017). Human behaviours associated with dominance in elite amateur boxing bouts: A comparison of winners and losers under the Ten Point Must System. *PLoS One*, 12(12), 1-12.
- Kim, S., Greenwell, T. C., Andrew, D. P., Lee, J., & Mahony, D. F. (2008). An analysis of spectator motives in an individual combat sport: A study of mixed martial arts fans. *Sport Marketing Quarterly*, 17(2), 109-119.
- Murphy, P., & Sheard, K. (2006). Boxing Blind: Unplanned Processes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Boxing. *Sport in Society*, 9(4), 542-558.

[인터넷자료]

- 대한 태권도 협회, 경기 규칙, 2022년 8월 22일 발췌,
<https://www.koreataekwondo.co.kr/d006>.
- 문수경, 노컷 뉴스, 둘 합쳐 수입 4500억원...메이웨더·맥그리거 모두 승자, 2022년 8월 22일 발췌,
<https://www.nocutnews.co.kr/news/4836957>.
- 세계대한프로태권도연맹, 연혁, 2022년 8월 19일 발췌,
<http://kptf.or.kr/amina/html.php?hid=0102>.
- 세계대한프로태권도연맹, 인사말, 2022년 8월 19일 발췌,

조은세상(서울대학교)·김민서(서울대학교)·김영연(서울대학교)

<http://kptf.or.kr/amina/html.php?hid=0101>.

한국실업태권도연맹, 팀 및 선수단, 2022년 8월 19일 발취,

http://www.kitf.or.kr/sub/sub02_01.php?boardid=team&sk=&sw=&category=&offset=24.

태권도 공연의 문화상품 활성화 방안과 전망

윤석주(신한대학교), 변대환(신한대학교), 박세원(신한대학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상징과 브랜드로 자리 잡은 태권도가 문화 콘텐츠로 태권도 문화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과연 태권도 공연은 대중적인 문화상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가? 둘째, 태권도 공연이 문화상품의 요소와 가치를 갖췄다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태권도 공연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등 세 가지 의문과 문제 인식을 통해 현재 태권도 공연을 소재로 한 문화상품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태권도 공연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태권도 문화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행문헌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해 연구 범위를 선정하고, 선행 연구를 고찰했다. 연구 결과, 태권도 공연을 문화상품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 대규모 관람석을 확보한 ‘태권도 전용공연장’을 건립해야 한다. 둘째, 태권도 공연을 전문화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태권도 전문 공연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태권도 시범과 공연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태권도 전문공연단이 있어야 한다. 넷째,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태권도 공연의 사회적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태권도 공연을 활성화하려면 자치단체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제어 : 태권도, 태권도공연, 태권도 콘텐츠, 태권도 문화상품, 태권도 문화산업

제 출 일 : 2022. 08. 22.

심사완료일 : 2022. . .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태권도 시범과 공연에 대한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America's Got Talent), 'World's best champion' 과 같은 세계적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기립박수를 받는 등 문화콘텐츠로서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대한민국 태권도의 가치와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국내에서는 세계품새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나태주 선수가 트로트와 태권도 퍼포먼스를 접목시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태권도는 국내외에서 문화 콘텐츠로서의 경쟁력을 충분히 인정받으며, 스포츠 종목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해 문화상품의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이루지, 2014).

또한 정부는 한글과 아리랑, 태권도를 우리나라 3대 브랜드로 선정해 한류 확산을 적극 추진하는 등 문화 가치를 본격적으로 확산하기로 했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화와 한류 붐을 일으키기 위해 태권도를 국가브랜드로 지정해 철학적·문화적 가치를 대변하고 있다(최연호, 2012).

이런 흐름에 발맞춰 태권도의 무도성과 스포츠 특성 및 문화예술성까지 표현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화상품 차원에서 태권도 공연을 기획하는 전문 업체들이 생기고, 국기원도 태권도 시범단의 한 축으로 공연팀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대학교 태권도 전공학과도 10년 전부터 시범과 공연 장르를 구분해 창작과 퓨전 형식의 공연 작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공연은 체계적이지 않은 홍보 활동과 대중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공연 설정과 내용, 그리고 제작비 부족 등 여러 문제를 드러내며 활성화의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여러 장르에서 태권도를 소재로 한 공연이 제작되었으나 대부분의 작품들은 수익 창출에 실패하여 공연예술 상품으로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정재운, 박현숙, 2012). 실제로 여러 기업들이 정부나 지자체 또는 문화예술 공연단체 등이 기획하는 공연물이나 이벤트를 지원·협찬하고 있으며 일부기업들은 이러한 스폰서십에 그치지 않고 문화 예술단체 등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태권도 공연은 이와 같은 기업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공연을 기획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따라서 태권도 공연을 단순히 스포츠 기술의 시연으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관객객 중심적 사고에 근거하여 문화콘텐츠의 가치는 지니고 있는 태권도 공연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확장해야 할 것이다(노정환, 구자영, 2019).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문화상품이자 대표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세계를 대표하는 공

연들에 비해 태권도 공연은 그 수준이 현저히 낮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 인기를 누리면서 ‘한류 열풍’이라는 문화현상을 만들어내며 대중문화 예술 산업의 콘텐츠로 발전하는 것에 비해 태권도 공연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상징과 브랜드로 자리 잡은 태권도가 문화 콘텐츠로 태권도 문화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과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태권도 경기화와 세계화로 올림픽 정식종목과 태권도 수련 인구 1억 명을 확보한 태권도가 무예-스포츠의 영역을 넘어 문화 콘텐츠와 상품 등 문화 산업으로 확장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태권도 공연의 가치와 가능성과 당위성을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첫째, 과연 태권도 공연은 대중적인 문화상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가?

둘째, 태권도 공연이 문화상품의 요소와 가치를 갖췄다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태권도 공연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위 세 가지 의문과 문제 인식을 통해 현재 태권도 공연을 소재로 한 문화상품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태권도 공연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 후 연구자들의 생각과 견해를 제시하여 태권도 문화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선행문헌 연구방법과 질적 연구방법을 병행해 진행했다. 선행문헌 연구방법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적 자료를 검토하는 연구방법이며(이명천, 김요한, 2005), 질적 연구는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로 현상의 의미를 해석하며 한 집단의 문화적 모형과 경험하는 현상 등에 관심을 두는 방법이다.

본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먼저 연구 범위를 선정하고, 선행 연구를 고찰했다. 태권도 공연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은 태권도의 상품적 가치와 문화산업의 가능성을 다룬 연구논문들을 선별해 분석했다.

태권도 공연을 문화 산업적인 측면에서 다룬 연구논문은 김기동·양대승(2017) 태권도 공연의 한류 문화콘텐츠 정착을 위한 제언(한국체육과학회지 제26권 제5호), 이루지(2014), 문화예술산업 콘텐츠로서 태권도공연의 상품화 방안(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제27권 제3호), 박태승 전익기(2011), 공연관광물로서의 태권도공연에 관한 연구(관광레저연구 제23권 제7호) 등이 있다.

선행연구를 고찰한 후 연구 범위를 선정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정리한 다음 전문가

들과 면담해 의견을 취합했다. 그 후 각 범주별로 소결론을 내리고, 태권도 공연의 흐름과 문제를 분석하여 결론 및 제언을 도출했다.

4. 용어의 정의

1) 태권도 시범

태권도 시범은 태권도 동작과 기술 및 기풍 등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행위이다. 국기원이 발간한 태권도교본에 따르면, 태권도 시범이란 태권도를 수련한 사람이 태권도 기술과 묘기를 보여줌으로써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태권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으로, 원론적인 의미에서 태권도 시범은 태권도 고수들이 ‘태권도는 이런 것이다’며 동작과 기술, 정신 등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2) 태권도 공연

태권도 공연은 시범처럼 태권도 동작과 기술을 보여주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태권도를 소재로 연극과 무용, 음악 등을 가미해 무대가 설치된 공간에서 관객들에게 여흥을 주고 주제를 표현하는 예술 활동이다. 따라서 태권도 공연은 태권도 동작과 기술을 보여주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재화(財貨)이다.

II. 본론

1. 태권도 공연의 흐름과 우수성

태권도 공연의 모태인 태권도 시범은 태권도의 여러 기술과 강점을 결부시켜, 태권도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 발전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최광근, 2011). 국기원은 1974년 태권도 시범단을 창단해 국내외 태권도 시범을 통해 대한민국을 알리는 데 노력했고, 태권도의 위상이 높아지자 각 대학에서 태권도학과를 설립하며 시범단을 창단했다.

‘태권도 공연’은 태권도와 공연을 접목한 형태로 초창기에는 시범적인 요소를 가미하다가 비언어 퍼포먼스와 퓨전 마살아츠 공연, 비보이와 국악, 현대무용 등과 접목한 창작 공연, 뮤지컬로 확대됐다.

이처럼 태권도 공연은 시범과 다른 장르로 발전하고 있다. 공연 연출에 맞는 의상을 입고 출연한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연기가 무대조명과 음악과 어우러지며 메시지(주제)를 전달한다. 따라서 태권도 공연은 태권도의 동작과 기술 및 기풍을 보여주는 시범과는 달리 문화상품으로서 공연 형태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태권도 공연은 기존 전통 시범공연에서 벗어나 예술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동시에 대중과 소통하며 객석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와 새로운 회전 기술, 고공 기술, 신기술 등 다양한 시범 기술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기술력으로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음악과 체조, 아크로바틱(acrobatic) 기술을 접목하고 스토리가 추가되며, 권선징악, 화합, 대립 등을 주제로 한 공연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변모 속에서 2006년 대한태권도협회의 ‘신화’를 시작으로 ‘신화 Episode II’, ‘탈’ 등 태권도를 활용한 한 태권도공연이 제작되었다(엄주용, 김동언 2021). 2010년에 제작된 ‘탈’은 태권도 공연으로는 최초로 정부 지원을 통해 월드투어를 추진했다. 이외에도 국기원 시범단의 ‘Great Taekwondo’가 2015년을 시작으로 2018년 시즌 4까지 국기원에서 상설로 공연되었고, 2015년 ‘더 태권포스-에이지 오브 태극-’이 공연되었다.

최근에는 태권도 공연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회들이 개최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는 2019년 ‘제1회 KTA 태권도 시범공연대회’를 개최해 연극 연출가와 파트너 관계를 형성해 공연을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회를 진행하는 등 새로운 방식의 태권도 공연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처럼 태권도의 한 영역(장르)인 공연도 한류 열풍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이 ‘아메리카 갓 탤런트(America’s Got Talent, 이하 아갓탈)에서 선보인 태권도 공연은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국기원태권도시범단도 세계 각국의 유명 공연 팀과 경쟁을 통해 최고의 공연 팀을 선발하는 미국 CBS ‘World’s best champion’에 출연해 태권도 공연이 지닌 문화콘텐츠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2. 다른 나라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문화 콘텐츠가 관광 상품이 되고 하나의 사업이 되면서 그 규모는 날이 발전하고 있다. 해외로 여행을 계획할 때 일정 안에 공연을 보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공연을 보기 위함이 목적 그 자체가 되어 해당 나라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

문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 공연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공연을 하나의 브랜드로 세계로 수출하고 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공연들이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것이 고착화되며 지역의 특색으로 대표가 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은 앞서 제시한 문화 선진국들의 문화콘텐츠 공연 사례이다.

1) 미국 뉴욕 - 브로드웨이

바둑판 모양으로 질서정연하게 만든 맨해튼 길을 비스듬하게 가로지르는 길을 ‘브로드웨이’라 부른다. 1899년 오스카 해머스타인이 처음으로 이곳에 ‘빅토리아 극장’을 세우면서 현재까지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브로드웨이의 공연 문화가 시작되어 세계 뮤지컬의 성지로서 브로드웨이에서 보는

뮤지컬 한 편은 뉴욕 여행의 필수 코스라고 할 수 있다. 타임스퀘어 자리한 극장들을 중심으로 영화와 공연이 상연되고 있으며 브로드웨이의 극장지구(Theater District)에는 40여 개 극장이 있다.

2) 미국 라스베이거스 - 태양의 서커스

세계적인 공연인 태양의서커스는 1993년 <미스테리어Mystère>를 시작으로 라스베이거스에서의 상설공연과 함께 전 세계를 순회하며 공연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에 머물던 서커스의 학문적 발전에도 기여하였다(김영아, 2014). 태양의 서커스는 30여 년간 세계 60개국, 450여 도시에서 약 2억 명의 관객을 유치하였고, 연간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공연으로 역사상 가장 성공한 공연 사업 모델로 꼽혀오고 있다.

3) 중국 베이징 - 경극

‘베이징 오페라(Peking opera)’로 일컬어지는 경극은 하얗게 분을 바른 뺨, 물감으로 그린 선이 선명한 얼굴, 무용에 가까운 동작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으면서도 격렬하다. 독특하고 아름다운 예술에 반한 서양인들은 경극을 ‘베이징 오페라’라 부르며 동경했고, 독일의 브레히트는 그 영향을 받아서 서사연극론을 창안했다.

3. 태권도 공연의 문화상품 활성화 방안

공연 예술의 문화상품화 측면에서 태권도 공연은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다. 20년 전부터 태권도 공연 전문 업체가 창작 공연을 하고 각 대학에서도 창작 및 퓨전 공연을 제작해 선보이고 있지만 태권도 공연에 대한 대중들의 인지도는 낮고 소비층과 구매 선호도는 경쟁력이 강하지 않다. 또한, 태권도 동작과 기술을 토대로 한 화려하고 고난도의 액션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나게 할 정도로 경쟁력을 갖춘 것이 비해 공연자들의 어설픈 연기력과 허약한 줄거리를 드러내며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다른 예술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예술적 공연 이미지는 태권도 공연을 충성 집단의 전유물 내지 그들만의 공연으로 인식하게 해 문화상품화를 위한 상품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실행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몇몇 작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작품은 투자대비 낮은 수익률로 수익창출에 실패해 문화상품으로의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루지, 2014). 따라서 앞으로 태권도 공연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상품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1) 태권도 전용공연장 건립

‘태권도 전용공연장’이 필요하다. 현재 태권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전용 공연장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 있는 K-아트홀과 무주 태권도원 T-1 공연장이 있다. 하지만 K-아트홀은 2012년에 개관하여 지속적인 공연과 태권도 행사 등을 현재까지 이어 나가고 있지 않고, 현재는 온라인 실감형

K-POP 공연장 ‘코카(KOCCA) 뮤직 스튜디오’ 로 바뀌어 행사를 하고 있어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가깝다. 또한 K-아트홀의 객석수와 공연할 수 있는 무대의 면적이 작아 태권도 공연을 기획하고 창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태권도원 T-1 공연장은 상설 공연을 하는 공연팀이 있지만 수도권에서 3시간이 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좋지 않아 관광객들이 공연을 관람하러 가기가 어렵다.

따라서 정부와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 공연장 크기와 많은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공연장을 건립한다면 태권도 공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2) 태권도 공연 교육 시스템 통해 전문 인력 육성

태권도 공연을 전문화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국에 태권도 시범을 전공한 태권도인들이 많다. 하지만 시범 분야에서 활동해 공연을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거나 격파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태권도 공연을 제작해 무대에 올렸을 때 시범과 격파 실력은 좋지만 공연적 무대 요소에 부합하는 재능이 많이 부족하다. 따라서 연기의 표현력과 공연 내용을 관객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고충이 있다.

이러한 문제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태권도 시범과 공연을 분리해 운영하는 각 대학교는 태권도 공연과 관련된 교과목을 개설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태권도 공연을 전문적인 교육하기 위해서는 공연을 전공한 연출, 작곡, 안무, 기획, 코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교과과정을 만들어 태권도 공연의 예술성을 높여야 한다. 태양의 서커스의 ‘캐나다 국립 서커스 학교’와 점프의 ‘점프 트레이닝 센터’를 참고하여, ‘태권도공연 아카데미’ 또는 대학교 교육 커리큘럼 신설, 태권도 관계 기관 내 전문 배우 훈련 시스템(엄주용, 김동연 2021). 등과 같이 전문적인 공연 교육을 통해 각 대학 재학생들을 태권도 공연배우로 성장시킨다면 태권도 기술의 화려함과 우수성뿐만 아니라 공연의 예술성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태권도 공연 전문 인력을 교육하고 육성해야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태권도 공연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3) 태권도 전문 공연단의 직업화

현재 태권도 전문 공연단의 수는 미비하다 또한 각 대학에서 시범과 공연을 전공한 학생들이 안정적인 직업으로 삼기엔 어려움이 많다. 전문적인 공연단의 부족과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해 공연에 대한 프로그램 및 체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일은 극히 드물다. 공연 프로그램에 대한 인원이 계속 바뀌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시범과 공연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다른 직업을 택하거나 지도자의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한 태권도 전문 공연단을 만들어 시범과 공연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명확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태권도 공연의 전문 인재들을 많아질 것이다.

4) 태권도 공연의 사회적 인지도 제고

대중들에게 태권도 시범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태권도 공연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와 인지도는 시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태권도 내부에서도 태권도 시범과 공연을 같은 장르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 태권도 공연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태권도 공연을 문화산업적인 차원에서 문화상품화를 하려면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술성과 흥행성을 두루 갖춘 태권도 공연을 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단편적이고 상투적인 내용으로 태권도 공연을 제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태권도 단체와 정부의 지원 속에 관객에게 여흥과 감동을 줄 수 있는 대규모 공연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 뚜렷한 주제 의식(메시지)과 짜임새 있는 줄거리, 화려한 무대효과와 태권도의 역동적인 퍼포먼스, 배우들의 연기력이 가미된 태권도 공연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태권도 공연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자치단체와 정부의 지원

태권도 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태권도 공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태권도진흥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 시범단 활성화 지원 사업뿐이다. 이 지원 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 받아 공연을 준비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공연 제작에 필요한 준비 기간과 금액은 턱없이 부족해 공연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원 사업이 앞으로 더욱 많아져야 많은 단체들이 공연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 금전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이를 통해 태권도 공연이 활성화가 될 수 있다.

태권도 공연의 발전 가능성은 세계적으로 그 경쟁력을 입증 받았다. ‘태양의 서커스’와 같이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서 새롭게 태권도 문화 열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상징이자 브랜드로 자리 잡은 태권도를 문화산업 분야로 확장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태권도 공연을 체계적으로 문화상품화해야 한다는 가능성과 당위성을 제시하며 연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지리적 접근성이 좋고 대규모 관람석을 확보한 ‘태권도 전용공연장’을 건립해야 한다.

둘째, 태권도 공연을 전문화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태권도 전문 공연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태권도 시범과 공연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태권도 전문 공연단이 있어야 한다.

넷째,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태권도 공연의 사회적 이미지와 인지도를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태권도 공연을 활성화하려면 자치단체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태권도 시범과 공연은 엄연히 다른 장르이다. 태권도 공연은 시범보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상품으로 키워낼 수 있고, 태권도 전공생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아메리카 갓 텔런트(America's Got Talent)'에서 선보인 태권도 시범을 보고 심사위원들은 심사평으로 “시범단이 만약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을 하게 된다면 티켓을 사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라며 놀라움을 표현하였다. 이처럼 태권도 시범을 토대로 공연을 제작하면 해외 수출 및 태권도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전 세계에 입증한 것이다. 따라서 태권도 공연의 활성화를 통해 태권도 공연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공연이 되고 국가브랜드로서 태권도가 지니고 있는 문화산업 영역이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기동·양대승(2017) 태권도 공연의 한류 문화콘텐츠 정착을 위한 제언(한국체육과학회지 제26권 제5호).
- 김영아(2014). 태양서커스(Cirque du soleil)의 성공 요인과 동춘서커스의 미래 전략에 관한 연구: 동춘서커스의 공연 구성을 중심으로. 세계문화비교학회.
- 박태승 전익기(2011), 공연관광물로서의 태권도공연에 관한 연구(관광레저연구 제23권 제7호)
- 이루지(2014). 문화예술산업 콘텐츠로서 태권도공연 상품화 방안.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7권 3호.
- 이명천, 김요한(2005). 광고연구방법론. 서울:커뮤니케이션 북스.
- 정제윤, 박현숙(2012). 공연예술서비스가 고객만족과 재구매 활성화 의도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과학회, 10(10), 45-57.
- 노정환, 구자영(2019) 청소년들의 해외태권도 시범 공연 참여를 통한 의식변화 탐색, 코칭능력개발지
- 최연호(2013). 태권도 공연의 공연경험 가치와 공연정서에 따른 몰입 및 관람 후 행동 모형.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노정환(2015). 태권도 시범단원의 다차원적 완벽주의가 성취목표성향 및 자기관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대학원.
- 최광근(2011). 태권도 세계화 전개과정에서 본 태권도 시범 史.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엄주용, 김동언(2021). 태권도 공연콘텐츠 개발 연구. 코칭능력개발지, 23(3), 142

성인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 부재와 활성화 방안

- 성인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과 생활체육 활성화 -

이승제 (용인대학교¹⁾), 임재범 (용인대학교), 신승희 (용인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인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과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생활체육에서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권도는 전문 체육 즉, 엘리트 체육 분야에서는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지만 생활체육 방면에서는 유아체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유아와 유소년의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태권도장도 이런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성인들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 연구자들은 생각하였다. 이에 현재 대한민국 태권도 생활체육의 실상을 파악하고 성인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인부를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장과 성인부를 운영하지 않는 태권도장의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성인부를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장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분석하며 운영 하면서의 어려움 등을 파악하였고, 성인부를 운영하지 않는 태권도장에 경우에는 성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이유와 그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성인 태권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고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성인 태권도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나아가 태권도 산업 발전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주제어 : 성인, 태권도, 생활체육, 수련, 프로그램

제 출 일 : 2022. 08. 22.

심사완료일 : 2022. . .

1) lmj31020@naver.com, wqja2661@naver.com, neo6653@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사회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우리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아졌다. 현대 사회의 대부분 사람들은 골프, 축구, 사이클 등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기고 있으며, 전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방면도 활성화되고 있다. 요즘 날 대한체육회에서는 7330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는데, 7330운동이란 일주일에 3번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을 얘기한다. 스포츠 생리학적으로 우리 인체는 외부의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를 지속하는 시간은 약 2일(48시간)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운동을 해야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한체육회 체육 포털) 이러한 점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은 단순한 스포츠 활동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해소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성인들은 축구, 야구,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성인 태권도 생활체육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현재 대한민국의 태권도는 엘리트 체육 중심의 프로그램과 태권도 도장은 유아와 청소년 중심의 태권도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다. 2022년 스포츠 지원 포털의 태권도 선수등록 통계를 따르면 학교 운동부는 11,965명 직장운동부는 378명인 반면 생활체육 클럽에 선수등록 인원은 6명이다. 전문체육인으로 구성된 학교 운동부와 직장운동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전문체육 종목별 선수등록 현황

종목	남	여	계
축구	25,645	1,225	26,870
농구	1,414	677	2,091
배구	1,453	912	2,365
골프	1,190	1,117	2,307
배드민턴	1,459	919	2,378
수영	1,806	1,145	2,951
탁구	727	685	1,402
태권도	8,266	4,077	12,343

<스포츠지원포털,2022>

다음으로 생활체육에 등록된 선수들의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 2> 생활체육 종목별 선수등록 현황

종목	남	여	계
축구	112,359	4,206	116,565
농구	5,967	24	5,991
배구	1,452	1,237	2,689
골프	239	121	360
태권도	4	2	6

<스포츠지원포털,2022>

표1, 표2, 통계를 살펴보면 전문체육인으로 등록된 선수들은 다른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 뿐 아니라 수치가 높게 나와 있지만, 생활체육은 다른 종목들과 비교하

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타 종목들은 생활체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태권도는 그렇지 않은 점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출산율 저하로 인해 초고령화 시대로 향하고 있다. 따라서 유소년 인구가 줄고 성인들의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도장들도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태권도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미국을 예로 들어만 봐도 성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잘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들이 자식과 함께 태권도 도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다. 본인이 다녀왔던 텍사스의 한 도장의 성인부는 40명 가까이 되는 수련생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는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땅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으며,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서 도장에 갔지만, 성인부 프로그램이 없어 유소년들과 같이 수련하는 성인들도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경우 성인과 유소년은 운동 수행 능력이 다르므로 제대로 된 운동이 되지 않으며, 성인들이 원하는 태권도를 수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태권도는 대한민국의 국기이다. 국기는 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인 만큼 유아나, 유소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기라는 용어의 맞게 전 국민이 태권도를 수련하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동참해야 비로소 진정한 국기 태권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인들의 태권도 인식을 알아보고, 태권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여가 제한되는 상황 여건 등을 파악하며, 성인들에게 맞는 수련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태권도 시장을 활성화하고 성인 생활체육 태권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성인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태권도장의 지도자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성인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하여 성인부 운영 전략과 성인부 도장의 기초지식, 경험지식 및 경험적인 지식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의 입각하여 본 연구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qualitative approach)으로 진행하였다.

1. 연구 참여자

1) 연구 참여자 선정 방법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에 있어 성인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도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다양한 지도 경험과 태권도 도장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성인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지도자와 성인부를 운영하지 않는 지도자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 본 연구법은 질적연구방법 중 사례연구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례연구법 중 특정 개인을 관찰 또는 심층 면담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다.

2) 연구 참여자

현재 대0 지역과 수도권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의 도장 운영 경력은 7년, 태권

성인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과 활성화 방안

도 지도 경력 7년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태권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도자를 연구 참여자 1로 선정하였고 현재 수도권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도장 운영 경력은 6년, 태권도 지도 경력 6년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지도자를 참여자 2로 선정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아래 <표 3>과 같다.

< 표 3 > 연구 참여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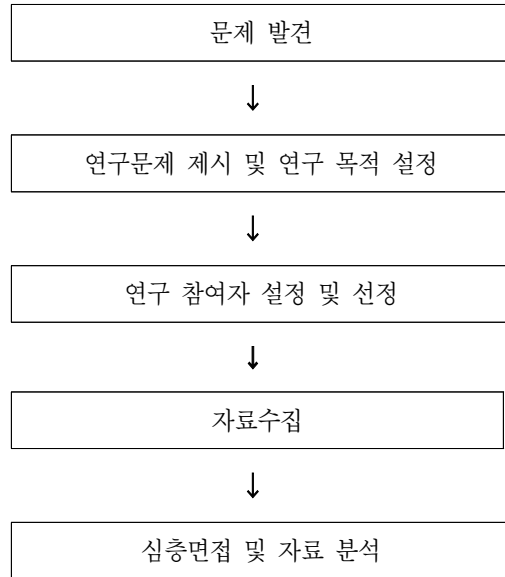
구분	참여자 구분	성별	소속	급수	지도자 경력
성인 태권도 운영	참여자 1	남	태권도장	5단	7년
성인 태권도 미운영	참여자 2	여	태권도장	5단	6년

2. 조사도구

1) 심층 면담

본 연구에서는 성인들을 직접 수련하는 참여자 1과 성인부를 운영하지 않는 참여자 2를 대상으로 연구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하였다. 먼저 참여자 1에게는 성인부를 운영하게 된 계기, 성인부 운영에 있어 어려웠던 점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참여자 2에게는 성인부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면담하였다.

3. 조사 절차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사, 공통된 주제 분류화, 의미화 단계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1) 전사

본 연구의 첫 번째 분석 과정은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전사하였다. 전사는 현장 작업에서 수집하거나 기록한 자료들의 후속적 분석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이다. 심층 면담 자료는 직접 면담과 이메일 연락으로 진행하며 면담이 끝난 즉시 면담의 기록을 전사하였다.

2) 공통된 주제 분류화

수집된 자료들을 전사 작업이 끝난 후 공통

된 주제를 찾아내서 분류를 진행한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공통된 주제를 통해 다양한 주제를 정하여 수행한다.

3) 의미화

분류된 공통 주제 요소와 참여자 1 주제와 참여자 2 주제를 비교하며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한다.

Ⅲ. 논의

연구자료 분석을 통해 본 연구자들이 논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은 도장들은 성인 관원 수가 부족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른 2021년 체육 동호회 조직 가입 이유와 미가입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 <표 4>, <표 5>와 같았다.

< 표 4 > 체육 동호회 조직 가입 이유

이유	통계 (%)
여러 사람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을 좋아함	59.4
지속적인 건강 및 체력 향상	18.4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의 유인책	13.8
운동 기술 향상	7.3
대회 참여 가능	0.8
기타	0.1

<국가통계포털, 2021>

< 표 5 > 체육 동호회 조직 미가입 이유

이유	통계 (%)
시간적 여유가 없음	42.7
관심 있는 동호회가 없음	29.5
여러 사람들과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음	11.4
금전적 이유	10.7
건강상 문제	5.3
기타	0.3

<국가통계포털, 2021>

성인들의 태권도 도장을 등록 하지 않는 이유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함께 운동할 사람이 없어서, 태권도 생활 체육 대회의 부재로 인해 자신의 실력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가 있었다. 실제로 태권도 전문체육 대회는 많이 활성화 되어 있지만, 생활 체육 대회는 많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 반대로 국가통계포털의 통계를 토대로 하여 성인들의 태권도 도장 등록 이유는 표적 발차기를 할 때 오는 타격감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태권도 기술 수행 성공에서 오는 성취감 등이 있다고 한다. 더불어 여러 사람과 어울려 운동하는 것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건강 및 체력을 향상 시킬 수 있어서, 지속적 체육활동 참여의 유인책이 되기 때문에, 운동 기술을 향상 시킬 수 있어서 등이 있다.

둘째 성인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성인들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야 한다. 본 연구자들은 성인 태권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논의하였다. 1. 매달 체력 측정을 통해 자신의 신체 운동 능력을 평가하고 지도자는 평가 기록을 분석하여 성인 수련생에게 피드백과 다음 운동 목표를 설정한다. 2. 태권스핏이라는 프로

그램을 개설한다. 태권스핏이란 태권도 동작과 크로스핏 운동을 결합하여 다양한 신체 운동 기능을 향상 시키는 수업 프로그램이다. 3. 실전 태권도, 실전 태권도는 자신의 몸을 방어하는 법과 태권도 기술을 사용하여 실전 태권도 수련하는 프로그램이다. 4. 시범 발차기와 아크로바틱 등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 개설이다. 이처럼 다양한 태권도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성인 태권도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셋째 본 연구자들이 논의한 성인부 태권도 수업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마케팅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인부의 수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성인부 관원이 적으면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성인 태권도 수업이 운영할 수 없으며, 성인부 수업을 개설하는 데 있어 큰 문제점이 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자들의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태권도 도장들은 유아와 청소년 위주의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은 도장에 성인들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학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수련할 수 있는 홍보성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체험하도록 한다. 이에 학부모들의 태권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성인들도 태권도를 배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2. 지역주민센터를 이용한 성인 태권도 무료 세미나와 태권도 교실 등을 통해 성인 태권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3. 태권도 서포터즈, 대학 태권도기자단 등의 대외 활동을 기획하여 태권도 전공생들과 동아리뿐만 아니라 이런 활동에 관심 있는 비전공생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유튜브, 블로그 등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V. 참고문헌

대한체육회 생활체육포털 스포츠7330안내
(<https://portal.sports.or.kr/info/sports7330intro.do>)

스포츠지원포털(2022)

학교운동부, 직장운동부 선수등록 현황
생활클럽 선수등록 현황
(<https://g1.sports.or.kr/stat/stat01.do>)

국가통계포털(2021) 체육 동호회 조직 가입이
유, 체육 동호회 조직 미가입 이유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남북 태권도 교환교류의 재인식과 향후 거취의 쟁점화

- 기존의 담론이 지닌 현실주의적 관점으로부터의 탈피 -

김민석(용인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남북 간의 태권도 교환교류 사업이 양국의 정치·외교적 국면에 종속되어 실행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현실주의적 담론이 지닌 제한점으로부터 탈피하고 현재의 실정에 적합한 논의 방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화진흥에 대하여 다룬 기존의 문헌들을 검토하되 남북분단의 특수성과 국가안보의 영속을 고려하여 교류 방식의 합리적인 방향성을 구상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문화적 폐쇄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게 됨과 동시에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기존 현실주의적 사업 방식에 내포된 정체성 혼란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기인한 태권도계 전반의 고정적인 인식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구성주의적 논의의 방법론을 제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안을 통해 차후 대북 태권도 진흥 사업의 촉진과 문화적 자원으로서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주제어 : 구성주의, 문화적 이질성, 연성권력, 집합정체성, 하위정치

1) gmlakd2154@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8년 4월 17일 대통령이 공포한 태권도의 법정 국기(國伎) 지정은 태권도가 국내외 사회·문화적 상황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정한 국가급 행정부처의 정치판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태권도 진흥정책의 외교적 효용성은 2002년 8월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남북 장관급회담 결과를 통해 이어진 남북 태권도 교환교류를 필두로 하여 태권도가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선행 관측할 수 있었고, 이는 곧 태권도의 문화적 교류가 대북(對北)정책의 연성권력(Soft-Power)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인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의 남북교류 실상을 반추해보면, 북한의 화전양면(和戰兩面) 전술에 종속되어 일시적인 평화 분위기 조성에 그치게 되는 구조적인 한계점에 봉착해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남북 간의 외교적 상황을 불문하고 태권도를 통한 대북 문화교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론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바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태권도가 가진 대북 문화교류의 효용성을 고찰해보며 태권도의 교류가

시류의 제한을 받지 않고 남북 양국의 통일된 공동선(Common-good)으로 추구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3.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의 현 실상이 태권도 진흥정책의 계속성을 침해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가?
- 2) 남과 북의 정치·군사적 국면이 초래하는 양상을 초월하고, 태권도를 활용한 문화교류를 해야 할 필요성은 무엇인가?
- 3) 남북 태권도 교류가 가능하다면 그 향방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특정한 문화적 교류에 앞서 국가안보의 유지가 전제되어야만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영속으로 이어진다는 대전제에 따라 경성권력(Hard-Power)의 정책 결정과정을 참고하였기에, 태권도의 문화적 확산 구조와 유의미한 차이점을 보일 수 있다.

II.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특정한 정책적 현안을 구상하기보다는 남북분단의 특수성에 기인한 태권

도의 문화교류 형태가 어떠한 문제에 종속되어 있는지를 탐구하여 관점을 재고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치의 사용은 회피하였고, 거시적인 관찰방식을 우선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접근 방식을 고수하기보다 전반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해결방안을 쟁점화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본 연구 중에 재인식된 내용을 토대로 생산될 다자적인 의견은 향후 수립될 태권도 진흥 목적의 정책적 현안에 대한 기반이 될 수 있다.

Ⅲ. 문제 제기 및 관점 제시

1. 북한의 문화적 폐쇄에 대한 기존 관점 재고

논의에 앞서 사례를 제시하여,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술에는 일관성과 불변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전제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대남 공작전술 중 하나인 “대화·접촉공작”을 예로 들어, 북측이 적화통일의 여지를 저해할만한 사회적 화제(Issue)를 공론화하여 한국과의 국제정치적 관계에서 외교적 명분의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예와 같이 북한이 무력적화통일이라는

관점을 고수하려 할 때, 효용성 판단의 척도는 경제력·군사력·정신력이 된다. 그리고 태권도는 무도철학적으로 수련을 통한 정신력의 상승을 꾀한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즉, 사회 전반에 공론화된 현실주의적 틀거리 내에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하위정치(Low-Politics) 분야가 새로이 조망을 받고 있는 현 실상에는 적용될 수 없는 의견이며, 이러한 실태는 곧 현실주의적 관점에 매몰되어 있는 지금의 태권도계 일각에도 비유할 수 있다.

전술 상황 하에서 육체적 경험이 정신의 통제를 넘어서게 된 것이 입증되었다는 점을 차치하고서라도, 태권도를 통한 남북 문화교류에 장애가 되는 요소는 이보다 더 본질적인 사안으로부터 기인한다.

핵심이 되는 문제요인은 바로 분단의 특수성과 문화적 이질성이다.

2. 남북분단 상황에서의 한국의 대북 위기인지

한국의 위기관리 형태는 국방정책론의 기본적인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위기는 상대국의 도발에서 시작되는데, 북한의 대남도발 형태는 주로 군사적 방식의 도발이었다.

그렇기에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을 관조하는 대중의 이목은 군사적 영역에 편중될 수밖에 없었고, 국가 차원의 대응 역시 지엽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존재론적 안보의 정체성(Identity)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이익에 대한 공통의 관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분석과 평가능력이 부재한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물질적 안보 관념을 아우르는 것은 물론 존재론적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또한 국가 단위의 위기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다.

3. 남북한 문화적 이질화 요인 분석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성 역시 분단의 고착화에 종속되어 있으며, 각기 고유한 특수성을 길러온 부분이 뚜렷하여 명확한 요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다만, 대표적인 원인을 언급하자면 체제의 존립을 위한 이념의 지향·규범적인 가치의식·선호하는 가치순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각자의 체제 하에서 습득되는 가치와 규범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IV. 결과 및 논의

1. 실정에 맞는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 재인식

안보의 대상을 한국과 북한 당국에 한하지 않고 국제체제로 넓혀보면, 국제안보는 단일 국가가 아닌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체제의 안녕과 평화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국제안보는 국제적인 노력과 중재, 평

화유지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가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는 자국의 문화적 자원을 대상국이

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

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의 국민들이 모두 향유하고 있는 문화의 존재는 그 자체로 양

국의 중요한 외교적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남과 북에 많은 수련자가 분포된 태권도는

쌍방 공통 이익의 추구를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예상할 수 있는 문화적 자원으로서의 태권도의 가치는 다음과 같다.

- 1) 남북의 태권도 교환교류를 지속시킴에

따라 양국의 존재론적 안보의 정체성을 유

지함과 동시에 대중의 관심을 하위정치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확산시킬 수 있다.

- 2) 양국 간의 상이한 문화적 습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질화의 간격을 공통된 문화

의 향유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메울 수 있다.

상기한 두 가지 사항은 문화 향유의 영

역이 일국의 정치체제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역, 즉 국경을 초월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

2. 기존 방법론으로부터의 탈피

본 연구를 통해 태권도를 활용한 남북 간의 문화교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

해서 다음과 같은 제반 사항들이 선행되어

야 함을 알 수 있다.

1) 태권도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구상할 때, 기존에 전통적으로 논의해왔던 현실주의적 관점으로부터 탈피하고 구성주의적 구상을 통해 행위 단위 간의 집합정체성(Collective Identity)를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행위 단위란, 한국과 북한 양국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태권도 수련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국가를 아울러서 고려해야 한다.

2) 시대의 요구에 따른 기술체계의 도입 및 변화가 태권도 자체의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공동선을 향한 올바른 사회적 판단의 길은 한 가지 의견으로 통일될 때가 아니라, 여러 의견이 끊임 없이 제시되고 또 논의될 때야말로 진정 실현될 수 있는 법이다.

3) 기존의 실질적인 기술교류와 합동시범 등도 평화 노선을 위한 효과적인 기획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은 태권도 수련인 및 관계자들에 한한 관심사가 될 수 있다. 문화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향유 계층이 필요하고, 그렇기에 대중의 호감을 불러올 수 있는 방향의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곧 활로가 된다.

V. 결론 및 제언

남북분단의 장기화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차치하고서라도, 문화교류는 안보의 영역을 침해할 수 없으며 긍정적인 상호보완의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남북 공통의 문화적 자원인 태권도 역시도 벗어날 수 없는

대전제이며, 태권도의 남북교류교류가 나아가게 될 향후의 거취도 현 실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적 차원에서의 담론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재인식해보았다.

시류를 주도하려면 현안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태권도계의 구성주의적 관점을 활용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조화·남북한 대중에 대한 태권도의 문화적 인식 상승이 동반되어야만 효용성 있는 문화사업을 계속성 있게 기획할 수 있으며 정체성 혼란에 대한 두려움(Fear of Chaos)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최정우(2008). 국가안보와 존재론적 안보.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한희원(2013). 국가안보의 법철학적 이념과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혁신모델에 대한 법규법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 한용섭(2020). 국방정책론. 서울: 박영사.
- 유현석(2021). 국제정세의 이해. 파주: 한울엠플러스.
- 유발 하라리(2017). 극한의 경험. 고양: 옥당북스.
- 모춘홍(2012). 남북한 문화갈등과 문화통합.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규욱(2021). 남북한 문화교류정책의 위상과 과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 최동성(2020). 남북한(WT-ITF) 태권도 합동 시범을 통한 태권도시범단의 발전방안 탐색.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 박삼경(2015). 북한의 불변적 대남전략전술하의 도발상황과 대비 방안.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 김승봉(2005). 태권도의 국제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판정 인식과 참여만족 및 재참여의사의 관계

장혜림(조선대학교)¹⁾ · 최수영(조선대학교)

요약

이 연구는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판정 인식과 참여만족 및 재참여 의사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태권도 품새·시범 선수로 활동하는 대학생 중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편의표본추출법을 이용하여 총 363부의 자료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Statistics 21.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과 단순·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판판정 인식은 참여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판판정 인식은 재참여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참여만족은 재참여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심판판정 인식과 참여만족 및 재참여 의사는 인과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판정 인식은 참여만족과 재참여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온라인태권도대회에서 심판판정 인식은 참가자의 경기력과 더불어 참여만족과 재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온라인태권도대회가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온라인태권도대회의 심판보수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nino0325@naver.com

I. 서론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현지시간) 기준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다(한영혜, 2020). 코로나19로 인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가 나타났다. 외식을 하거나 고위험 시설에 방문할 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혹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또한, 직장 문화도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만 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재택근무, 유연근무 등 새로운 형태의 업무 수행 방식으로 변화했다. 학생들도 개학이 연기를 거듭한 가운데 사상 초유의 원격으로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이렇듯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놓았으며, 스포츠 또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국제적으로 2020 도쿄올림픽의 개최가 1년 미뤄지는 사태가 발생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NBA 리그, 영국의 프리미어리그(EPL)가 중단되었다. 국내 역시 종목별 대회부터 전국체전까지 많은 대회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태권도에서도 나타났다. 세계태권도연맹(WT)은 지난 5월 21일부터 나흘간 덴마크 헤르닝에서 ‘2020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전격 취소되었다(한혜진, 2020).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인의 일상이 언택트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김경오, 김상범, 2020). 스포츠 행사 역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2020년 4

월 6일 107회 벨기에 사이클 대회인 ‘투어 오브 플랜더스(Tour of Flanders)’가 가상현실로 경기가 진행되었다(함주일, 2021). 태권도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대회 취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국제적으로 세계태권도연맹과 아시아태권도연맹에서 사상 첫 온라인 국제대회를 개최하였고(방인주, 안근아, 2021), 국내에서는 태권도원 문화페스티벌, 제16회 무주 웰빙 태권도 축제, 2020 신한대학교 총장기 태권도대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선수, 지도자 및 관중들의 갈망과 욕구를 해소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회 형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김기동외 2명, 2021). 하지만 온라인태권도대회는 공정성과 형평성, 그리고 영상의 촬영 상황 등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예슬, 박종화, 2020). 특히, 심판은 화면에 보이는 단편적인 모습을 관찰하여 판정해야 하므로 오프라인대회 보다 전문적인 심판판정이 요구된다(김기동외 2명, 2021).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심판판정은 대회 참가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태권도 겨루기 선수들은 불공정한 심판판정이 선수의 운동 지속의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김향훈외 2명, 2017), 택견선수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심판판정 인식이 참가만족도와 재참가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인임을 규명하였다(오준석외 2명, 2008). 이처럼 심판판정인식은 선수들의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결국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김현우, 2019), 심판은 참가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김기선, 2002). 즉 선수들은 자신이 참여하는 운동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심판관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참여만족은 참가자가 직접 참여하고 느끼는 전반적 감정 및 태도를 의미한다. 참여만족은 평상시의 훈련 이외에 대회의 참가했을 때 경험했던 감정을 토대로 그 종목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즉 대회에 참가했을 때, 심판관정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참여만족이 높아지게 되며, 만족도가 높을 경우 재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재참여 의사는 재참여 결정을 함으로써 끝나는 것은 아니며, 만족 또는 불만족을 경험한 후 자기 자신의 잘못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그 활동에 대한 재참여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 것으로(손성훈, 2015) 재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심판관정 인식과 참여만족도 및 재참여의사 간의 관계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심판관정이 참여만족, 재참여의사와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생겨난 온라인태권도대회와 같은 새로운 환경을 고려한 연구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온라인태권도대회는 일회성 대회가 아닌 포스트코로나시대 계속해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태권도연맹(ATU) 회장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깔아놓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 온라인태권도대회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였다(김철오, 2020). 또한, 세계태권도연맹은 일시적으로 개최된 온라인 품새선수권대회를 분기별 개최로 확장할 예정이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상(VR)·증강(AR) 현실로 경기장을 구현하고 실시간 채점이 가능한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다(김철오, 2020). 이는 온라인태권도대회의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며, 과학기술의 도입과 더불어 공정한 경기대회로 자리매

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기동외 2명(2021)은 온라인태권도대회의 심판에 대한 전문성을 요구하였으며, 방인주, 안근아(2021)은 온라인태권도대회에 맞는 대회규정의 정립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렇듯 대부분의 연구에서 온라인태권도대회 심판관정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온라인태권도대회 심판관정이 참가 선수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다소 부족한 상태라고 판단된다. 즉 온라인대회의 심판관정 인식이 참가자들의 참여만족 및 재참여 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를 통해 온라인태권도대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의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태권도대회에 참가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태권도대회 심판관정인식과 참여만족 및 재참여의사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규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관정 인식과 참여만족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관정 인식과 재참여 의사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참여만족과 재참여 의사의 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관정 인식과 참여만족 및 재참여 의사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이 연구는 대학태권도 품새·시범선수로 활동하는 대학생 중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모집단은 전국의 대학태권도 품새·시범선수 중 온라인태권도대회를 참가한 경험이 있는 선수이며, 표본수는 G power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표집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법인 편의표본 추출법(Convenience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여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경험이 있는 선수를 393명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였다. 2021년 12월 8일부터 2022년 1월 6일까지 총 393부 설문지를 배부 및 수거하였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대면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기 어려워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태권도 관련 학과가 있는 15개 대학의 시범

단·품새단 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이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학태권도 품새·시범선수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자기평가기입법으로 작성한 뒤 수집된 설문지 중 응답을 하지 않거나 내용이 미흡한 설문지 30부를 제외한 나머지 363부의 설문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 256명(70.5%), 여학생 107명(29.5%)으로 나타났다. 소속은 서울·경기 141명(38.9%), 충청도 28명(7.7%), 경상도 91명(25.0%), 전라도 79명(21.8%), 강원도 24명(6.6%)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121명(33.3%), 2학년 110명(30.3%), 3학년 109명(30.0%), 4학년 23명(6.3%)으로 나타났다. 참가부문은 품새 부문 106명(29.2%), 시범 부문 257명(70.8%)으로 나타났다. 경력은 3년 미만 91명(44.0%), 3년 이상 ~ 7년 미만 207명(57.0%), 7년 이상 63명(17.5%)으로 나타났다. 온라인태권도대회 입상경험이 있는 참가자는 248명(68.3%), 없는 참가자는 115명(31.7%)으로 나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256	70.5
	여자	107	29.5
지역	서울, 경기도	141	38.9
	충청도	28	7.7
	경상도	91	25.0
	전라도	79	21.8
	강원도	24	6.6
학년	1학년	121	33.3
	2학년	110	30.3
	3학년	109	30.0
	4학년	23	6.3
참가부문	품새	105	28.9
	시범	258	71.1
운동 경력	3년 미만	91	44.0
	3년 이상 7년 미만	207	57.0
	7년 이상	63	17.5
온라인 대회 입상경험	있음	248	68.3
	없음	115	31.7
오프라인 대회 입상경험	있음	219	60.3
	없음	144	39.7
합계		363	100.0

타났으며, 오프라인대회 입상경험이 있는 참가자는 219명(60.3%), 없는 참가자는 144명(39.7%)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1. 조사도구

1) 심판판정 인식

연구에서 사용된 심판판정 인식 설문지는 신뢰성 4문항, 공정성 4문항, 정확성 4문항 총 12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최재만(1982), 허동진(2010)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이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예비검사를 통해 요인적재치 .4 이하인 1개 문항을 삭제한 후, 설문지를 최종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신뢰성 7문항, 정확성 4문항 총 11문항을 사용하였다. 심판판정 인식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식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방법은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KMO* 통계량은 .905로 나타났고, Bartlett의 단위행렬 근사적 X^2 값이 1710.648이며, 유의도가 $p=.000$ 으로 설문지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신뢰성 요인 .853 정확성 요인 .774로 나타나 타당도와 신뢰도를 가진 조사도구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심판판정 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신뢰성	정확성
Q. 4	.769	.119
Q. 2	.745	.254
Q. 1	.722	.275
Q. 3	.675	.386
Q. 5	.667	.251
Q. 6	.621	.332
Q. 7	.519	.093
Q. 8	.048	.814
Q. 11	.276	.797
Q. 9	.414	.705
Q. 10	.449	.653
<i>Eigenvalue</i>	3.675	2.706
<i>Var%</i>	33.407	24.600
<i>Cum%</i>	33.407	58.007
<i>Cronbach's α</i>	.853	.774

KMO=.905, X^2 =1710.648, df =55, Sig =.000

2) 참여만족

참여만족은 참가자가 직접 참여하고 느끼는 전반적 감정 및 태도로서 유규중(2002), 서효민(2019)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이 연구의 목적과 대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참여만족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식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방법은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KMO* 통계량은 .931로 나타났고, Bartlett의 단위행렬 근사적 X^2 값이 2597.793이며, 유의도가 $p=.000$ 으로 설문지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요인적재량이 .4 이하인 문항을 제외하였다. 또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908로 나타나 타당도와 신뢰도를 가진 조사도 구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 참여만족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참여만족	
Q. 8	.833
Q. 2	.830
Q. 3	.828
Q. 4	.822
Q. 9	.804
Q. 11	.780
Q. 10	.770
Q. 12	.767
Q. 7	.750
Q. 6	.612
Q. 1	.562
<i>Eigenvalue</i>	6.429
<i>Var%</i>	58.442
<i>Cum%</i>	54.442
<i>Cronbach's α</i>	.924

KMO=.934, X^2 =2552.046, *df*=55, *Sig*=.000

3) 재참여 의사

재참여 의사는 설문지 또한 단일요인으로 이정은(2017)이 사용한 설문지를 이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재참여 의사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방식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요인회전방법은 베리맥스(Varimax) 방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KMO* 통계량은 .943로 나타났다, Bartlett의 단위행렬 근사적 X^2 값이

2634.622이며, 유의도가 p =.000으로 설문지의 타당도가 검증되었다. 또한,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952로 나타나 타당도와 신뢰도를 가진 조사도 구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재참여 의사에 대한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재참여 의사	
Q. 8	.892
Q. 3	.878
Q. 4	.871
Q. 7	.868
Q. 6	.867
Q. 5	.866
Q. 2	.862
Q. 1	.816
<i>Eigenvalue</i>	5.989
<i>Var%</i>	74.861
<i>Cum%</i>	74.861
<i>Cronbach's α</i>	.952

KMO=.943, X^2 =2634.622, *df*=28, *Sig*=.000

2. 자료처리방법

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수집된 자료 393부 중 불성실한 설문지 30부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설문지 363부 분석을 위해 통계 프로그램 SPSS Statistics 21.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한 분석기법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단순 회귀분석

(simple regression analysis), 다중 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변인 간의 상관관계

이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판정 인식이 참여만족 및 재참여의 의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이에 앞서 측정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심판판정 인식 중 신뢰성과 참여만족은($r=.170, p<.001$)으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심판판정 인식 중 정확성과 참여만족은($r=.125, p<.017$)으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심판판정 인식 중 신뢰성과 재참여의사는($r=.363, p<.000$)으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심판판정 인식 중 정확성과 재참여 의사($r=.222, p<.000$)으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참여만족과 재참여 의사는($r=.547, p<.000$)으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심판판정 인식과 참여만족 및 재참여 의사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신뢰성	정확성	참여만족	재참여 의사
신뢰성	1.000			
정확성	.643**	1.000		
참여만족	.170**	.125*	1.000	
재참여 의사	.363**	.222**	.547**	1.000

* $p<.05$, ** $p<.01$

2. 심판판정 인식과 참여만족 간의 관계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판정 인식이 참여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판정 인식이 참여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선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F=5.436, p<.05$ 수준에서 변인 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2=.029$ 로 총 변량의 2.9%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 심판판정 인식의 하위요인인 신뢰성($\beta=.155, p<.05$)은 참여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심판판정 인식이 참여만족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참여만족			
	B	SE	β	t
신뢰성	.133	.058	.155	2.285*
정확성	.018	.052	.024	.353
$F=5.436^*$, $R=.171$, $R^2=.029$ * $p<.05$				

3. 심판판정 인식과 재참여 의사 간의 관계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판정 인식이 재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판정 인식이 재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선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F=27.288$,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2=.132$ 로 총 변량의 13.2%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 심판판정 인식의 하위요인인 신뢰성($\beta=.379$, $p<.001$)은 재참여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심판판정 인식이 재참여 의사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재참여 의사			
	B	SE	β	t
신뢰성	.458	.078	.379	5.902***
정확성	.027	.069	-.025	-.387
$F=27.288^{***}$, $R=.364$, $R^2=.132$ *** $p<.001$				

4. 참여만족과 재참여 의사간의 관계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참여만족이 재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F=154.062$, $p<.001$ 수준에서 변인 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증한 결과, $R^2=.300$ 로 총 변량의 30%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 결과, 참여만족($\beta=.547$, $p<.001$)은 재참여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참여만족이 재참여 의사에 대한 단순회귀분석 결과

	재참여 의사			
	B	SE	β	t
참여만족	.777	.063	.547	12.412***
$F=154.062^{***}$, $R=.547$, $R^2=.300$ *** $p<.001$				

5. 심판판정 인식과 참여만족 및 재참여 의사의 인과관계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판정 인식이 참여만족 및 재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각 변인들 간의 회귀계수를 이용한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9. 변인 간의 경로분석 결과

경로	직접 영향	간접 영향	인과 관계
심판관정 인식 → 참여만족	.161**		.161***
참여만족 → 재참여 의사	.316***		.316***
심판관정 인식 → 재참여 의사	.547***		.547***
심판관정 인식 → 참여만족 → 재참여 의사		.161*** × .316***	.051
총 효과		.598	

** p<.01, *** p<.001

<표 9>에 의하면,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관정인식은 참여만족($\beta=.161$), 재참여 의사($\beta=.547$)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관정 인식이 참여만족, 재참여 의사에 미치는 총 영향은($\beta=.598$)로 나타났다.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관정 인식과 참여만족 및 재참여 의사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총 효과를 분석하였다. 직접효과는 심판관정 인식이 재참여 의사($\beta=.547$)에 영향을 미치며, 간접효과는 심판관정 인식이 참여만족을 통해 재참여 의사($\beta=.161 \times .316=.051$)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러한 결과는 온라인태권도대회 심판관정 인식이 참여만족을 통해 재참여 의사에 미치는 간접효과보다 심판관정 인식이 재참여 의사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이 연구는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경험이 있는 대학태권도 시범·품세 선수 36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관정 인식이 참여만족 및 재참여 의사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관정 인식(신뢰성, 정확성)은 참여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판관정 인식의 하위요인인 신뢰성이 참여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제동(2015)의 연구에서 심판의 신뢰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결과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판 요인은 참가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준석의 2명(2008)의 결과와 유사하다. 다시 말해, 심판관정의 인식은 참여만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수들의 보다 높은 만족도를 위해 심판관정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대회 참가자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회 환경뿐만 아니라 심판관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태권도대회의 특성을 반영한 심판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속적으로 심판관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심판보수교육을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선수들이 온라인 상황에서도 심판의 판정방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심판관정에 신뢰를 가지고 참여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관정 인식(신뢰성, 정확성)은 재참여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심판관정 인식의 하위요인인 신뢰성이 재참여 의사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재동(2015)의 심판의 신뢰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경기를 지속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결과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대회 심판관정은 재참가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오준석외 2명(2008)의 결과와 유사하다. 즉, 대회 참가자들은 심판관정을 신뢰롭게 인식할수록 재참여 의사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유사하게 오대중, 이양주(2018)의 연구에서 심판의 신뢰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 중·고등학교 검도선수로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며, 경기 결과에 따라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여 더 발전하고자 운동을 지속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참가자들은 심판관정이 신뢰롭다고 인식할수록 운동지속의사와 재참여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행변인임을 시사한다. 즉 심판관정에 대한 선수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할 때, 운동을 지속하고자 하며, 대회 재참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셋째,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참여만족은 재참여 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영재(2011)의 연구에서 참여만족이 재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태준(2004)의 연구에서 마라톤대회 참여만족은 재참여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참여만족은 선수들이 온라인태권도대회를 다시 참여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재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참여만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신진호, 황인선(202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유소년축구대회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한다면 재참여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기동외 2명(2021)의 연구결과와 방인주, 안근아(2021)의 연구결과에서 온라인태권도대회에 대회 규칙 미비와 운영 방식, 촬영 규정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대회를 준비하는 물리적 환경이 개선이 된다면 온라인태권도대회에 대한 참여만족을 높아질 것이고, 그로 인해 재참여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관정 인식이 참여만족을 통해 재참여 의사에 미치는 간접효과보다 심판관정 인식이 재참여 의사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 심판관정 인식이 신뢰롭다면 이는 곧 참가자들의 재참여 의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시사한다. 심판관정이 얼마나 신뢰로운지에 따라 재참여의 의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가 신뢰할 만한 심판관정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비록 참여만족도를 통해 재참여 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약하지만, 온라인태권도대회에서 심판관정이 신뢰로울수록 참여만족과 재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함으로써 온라인태권도대회 심판관정에 대한 더 세부적인 심판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것과 온라인태권도대회의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기선(2002)의 연구결과에서 심판은 참가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 밝혔듯이 심판보수교육이 더욱 강화된다면 온라인태권도대회의 심판관정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고 심판관정이 애매하다는 편견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김기동외 2명(2021)의 연구결과에서 나온 온라인태권도대회의 개선방안으로 대회 규칙 및 용어의 통일, 심판 전문성 확보, 온·

오프라인의 병행, 방송 기술을 활용한 대회의 질 향상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토대로 온라인태권도대회가 점차 개선해 나아가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참여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더욱이 재참여 유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온라인태권도대회가 하나의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대회 참가자들에게 심판관정이 신뢰롭다고 인식되는 것이 중요하다. 심판관정은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채점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세계태권도연맹이 온라인태권도 대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참가하는 선수들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태권도대회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전망이다. 이처럼 온라인태권도대회가 지도자, 선수, 대중들에게 공정한 대회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심판관정의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온라인태권도대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심판관정과 관련된 규제 및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태권도대회의 심판관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심판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등이 신설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온라인태권도대회를 준비하는 제도적 차원에서도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통해 보다 신뢰롭고, 공신력 있는 온라인태권도대회의 개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온라인태권도대회는 시·공간의 제약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는 태권도 세계화에도도하고, 또 다른 태권도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관정 인식과 참여만족 및 재참여 의사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20년, 2021년 온라인태권도대회를 참가한 대학 소속의 태권도 품새·시범 선수 36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관정 인식은 참여만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관정 인식은 재참여 의사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셋째,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참여만족은 재참여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관정 인식과 참여만족 및 재참여 의사는 인과적 관계가 있다.

2. 제언

이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을 인지하고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온라인태권도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심판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진행한다면 온라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심판관정에 대한 고충이나 더 심층적인 심판관정에 대한 논의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온라인태권도대회를 개최하는

주최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가 진행된다면 온라인태권도대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대학 입시와 관련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심판판정인식에 대한 민감도가 어떤지 연구를 진행한다면 심판판정에 관한 더 심층적인 논의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태권도 심판판정에 대한 연구는 태권도 겨루기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다수이다. 태권도 품새·시범 대회 참가자의 심판판정 인식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태권도 품새·시범 대회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이 연구는 온라인태권도대회에 참가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판판정 인식, 참여만족, 재참여 의사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온라인태권도대회의 발전방향이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변인 간의 관계를 구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온라인태권도대회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대회이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온라인태권도대회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온라인태권도대회의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태권도대회와 관련하여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온라인태권도대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경오, 김상범(2020).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스포츠에 대한 소고. **한국스포츠학회지**, 18(3), 793-801.
- 김기동, 김정환, 곽택용(2021). 온라인 태권도 시범대회 개선방안. **국기원태권도연구**, 12(3), 23-34.
- 김기선(2002).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에 대한 지도 조사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상겸, 문재태(2014). 헌법상 스포츠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심판판정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7(2), 71-99.
- 김철오(2020.10.24). 안방서 영상적어 출전... 국제대회 새 길 연 '온라인 품새선수권'. **국민일보**, 2021년 11월 25일 발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61064&code=12160000>
- 김향훈, 이석준, 심영균(2017). 고등학교 태권도 겨루기 선수의 심판판정 결과인식과 운동지속성 및 경기력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 12(3), 91-102.
- 김현우(2019). **레슬링 선수의 심판판정인식이 운동몰입과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영재(2011). **체험 스쿠버 다이버들의 참여동기가 참여만족 및 재참여 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태준(2004). **마라톤대회 참여동기가 참여자의**

- 만족과 재 참여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방인주, 안근아(2021). 온라인 태권도 품새 대회 인식 및 개선방안 탐색. **한국스포츠학회**. 19(1), 727-735.
- 사재동(2015). **중학교 축구선수의 심판 판정에 따른 경기지속 참여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효민(2019). **스포츠이벤트품질이 참가자의 참여만족과 스포츠몰입,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생활스포츠이벤트를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손성훈(2015). **스쿠버 다이빙 교육서비스가 지도자 신뢰 및 효율성과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 송남정(2021). 태권도문화콘텐츠 사례분석을 통한 미래사회의 태권도 역할. **무예연구**. 15(3), 69-84.
- 신진호, 황인선(2021). 유소년 축구대회 물리적 환경이 참여만족과 재참여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30(5), 411-423.
- 양대승, 강현우 (2017). 태권도 품새 선수의 스포츠자신감, 심판판정인식 및 경기력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6(6), 405-415.
- 오대중, 이양주(2018). 중· 고등학교 검도선수들의 심판판정인식과 심리상태, 경기스트레스 및 운동지속의도의 관계. **대한무도학회지**. 20(4), 103-117.
- 오준석, 신동영, 장경태(2008). 택견 경기대회의 환경요인 지각이 선수의 차기대회 재참가 의사에 미치는 영향. **용인대학교 무도연구소**. 19(1), 119-131.
- 유규종(2002). **직장이벤트 참여만족이 조직현실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승환(2014). **태권도 시범경연대회의 발전방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 이예슬, 박종화(2020).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태권도 분야 이슈 분석. **국기원태권도연구**. 11(3), 79-94.
- 이정은(2017). **프로골퍼의 스크린골프대회 참여 동기 및 참여만족이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조은정, 임승엽(2017). 주관적 판정 종목 리듬체조의 심판판정 공정성 및 전문성에 대한 선수-학부모의 관점 이해.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0(4), 71-91.
- 최재만(1982). **蹴球審判의 判定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하명진, 강형숙(2021). 대학 태권도 품새경기의 부정적 심판판정 관련 요인분석. **한국스포츠학회지**. 19(4), 731-741.
- 한영혜(2020.3.12.). WHO, 결국 사상 세 번째 ‘팬데믹’ 선언… “코로나 통제가능”. **중앙일보**. 2021년 11월 25일 발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28084#home>
- 한혜진(2020.11.11.). 바빠진 품새 강자들! 사상 첫 온라인 세계품새선수권 열린다!. **무카스**. 2021년 11월 25일 발췌, <https://mookas.com/news/17725>
- 함주일(2021). 위드 코로나 시대에 스포츠 안전의 패러다임 변화와 대응. **한국경호경비학회지**. (67), 99-122.
- 허동진(2010). **검도선수의 심판판정 인식과 경**

기스트레스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교육
대학원.

태권도의 날 기념

**전국
대학생
태권도
학술경진대회**

발표 자료집